

# Style

1 조선일보

SEPTEMBER 2022  
vol.241



DIOR  
PRESTIGE  
디올 프레스티지 라 크렘므



DIOR

LEGEND  
OF DIAMONDS  
BY VAN CLEEF & ARPELS  
—  
25 MYSTERY SET  
JEWELS

Van Cleef & Arpels is unveiling a collection of 25 unique creations,  
all of them originating from a single rough diamond weighing 910 carats.  
Combining DIF stones of the highest quality and the emblematic Mystery Set technique,  
each piece has been crafted in the Maison's workshops on Place Vendôme,  
home to all its High Jewelry savoir-faire.

Van Cleef & Arpels

Haute Joaillerie, place Vendôme since 19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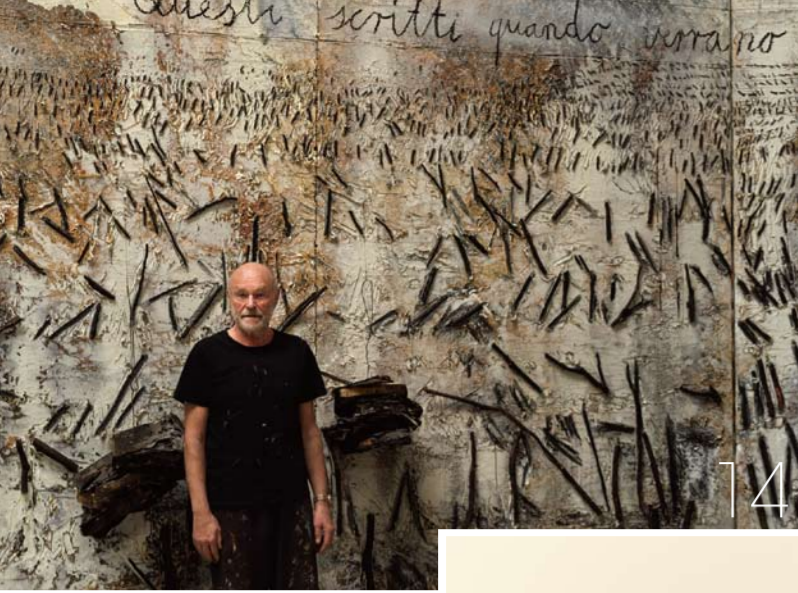


Liens Collection



YOUR STORIES OF LIENS

**CHAUMET**  
PARIS



14



28



조선일보  
**Style**  
DIOR  
PRESTIGE  
다들 프레스티지 라 크림은  
DIOR  
피부에 새겨진 시간의 흔적을 완화하는 에이지 디  
파밍 크림인 '다들 프레스티지 라 크림'. 오지 디  
올 스킨케어에 관한 정보, 로즈 드 그랑빌의 강인  
한 생명을 담았는데, 피부 장벽과 표면, 그리고  
속까지 3단계 집중 케어를 통해 한층 아려 보이고  
화사한 장미빛 피부를 선사한다.  
문의 080-342-9500



30



10

- 14 **이모든 낙하(落下)를 두 손으로 받아들이는...**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의 신작이 서울에 당도했다!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명사를 비롯해 릴케의 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작품들을 서울로 보낸 그와 '글로벌 주고받은 인터뷰.
- 16 **유쾌하고 진지하게!** 스타급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인 셰퍼드 페어리 (Shepard Fairey)와 배리 맥기 (Barrg McGee)의 전시.
- 17 **KIAF SEOUL-FRIEZE SEOUL 2022** 올 하반기 미술계를 들썩인 아트 페어 주각이 활짝 펼쳐지고 있다. 9월 2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나란히 막을 올리는 프리즈 서울(Frieze Seoul, 2~5일)과 카자 프 서울(Kiaf SEOUL, 2~6일)이 그것.
- 18 **WRIST CHECK** 볼드한 브레이슬릿 하나면 심플한 룩에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 19 **HER FINEST** 일상의 순간을 밝혀주는 스몰 주얼리 워치.
- 20 **MODERN GIRL** 모던함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말프 로렌 컬렉션과 워치 & 파인 주얼리로 완성한 2022 F/W 베스트 룩.
- 26 **2022 F/W TREND REPORT FOR WOMEN & MEN**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각적으로 화려하거나 장식적인 요소가 다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한 가을, 겨울 트렌드.
- 28 **NOMADIC FANTASY** 루이비통 오브제 노마드(Objets Nomades) 컬렉션이 어느새 탄생 10주년을 맞이했다. 말라노라는 디자인 도시를 다시금 즐길 수 있었던 영감 넘치는 한장을 소개한다.
- 30 **SECRET GARDEN** 클래식함과 우아함이 돋보이는 2022 F/W 키 룩 포트폴리오.
- 38 **LYRICAL DREAM** 반클리프 아펠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녹인 매종이 한국, 서울에 오픈했다.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의 CEO이자 회장 니콜라 보스(Nicolas Bos)에게 매종에 대해 질문을 던졌다.
- 39 **KEEP TURNING ON JOY** 피아제가 매종의 미학과 정신을 응축해 선보인 피아제 포제션 팔리스 데코 컬렉션.
- 40 **LADY DAYS** 사랑스러운 미니 레이디 토트백.
- 41 **NEW FOR YOU** 작은 것으로도 여자들의 욕망을 가득 채워줄 패션 액세서리.
- 42 **THE SECRET OF ULTIMATE BEAUTY** 로즈 드 그랑빌의 생명력을 담은 다들 프레스티지 라 크림 인텐스브 리페어링 크림.
- 44 **POWER OF SKIN** 탄력과 생기를 잃은 자진 피부에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와 고귀한 성분으로 강력한 힘을 부여해줄 영양 세럼.
- 45 **REJUVENATING ESSENTIALS** 노화에 관한 크고 작은 고민의 근사한 해결책이 되어줄 카엘의 스킨 리뉴잉 마이크로-도즈 세럼.
- 46 **EDITOR'S PICK** 신선해진 비람과 변화한 날씨로 달라진 피부 컨디션을 책임질 아델의 뷰티템 1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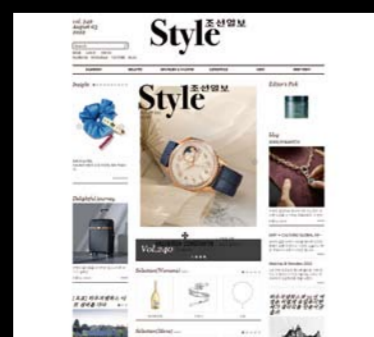
FENDI.COM



**FENDI**

**ROMA**

**Style** 조선일보  
Issue.241 September 2022



**stylechosun.com**

대표 | 방정오 cbang@chosun.com  
편집장 | 김유미 ymkim@chosun.com 피처 디렉터 | 고성연 amazingk@chosun.com  
패션 - 뷰티 디렉터 | 장와은 rarara@chosun.com 에디터 | 성정민 sjm@chosun.com  
이주이 juyi.lee@chosun.com 아트 디렉터 | 이은옥 okida0820@naver.com 교열 | 이정현  
광고 - 마케팅 | 박영하 yhpark@chosun.com 김준석 adjoons@chosun.com  
이정희 ih5567@chosun.com 유우희 whyoo@chosun.com 제작 김한기 hgkim@chosun.com  
재무 관선비 분해, 재판 리은 인혜 | 타라티피에스 기사 문의 02-793-5330 광고 문의 02-793-5339  
발행처 (주)스타일조선 서울시 용산구 서빙고로 413 현대 하이메리온 비즈스퀘어 110호  
매월 첫째 주 수요일에 발행하며 서울 강남구, 서초구, 송파구, 목동, 여의도, 한남동, 동부이촌동, 평창동, 성북동, 경기도 성남 분당구, 부산 해운대구, 수원, 동래구, 남구, 연제구, 대구 수성구의 조선일보 구독자에게 배달됩니다.  
※ 3·4·9·10월은 첫째, 셋째 주 수요일에 격주로 두 번 발행합니다.  
※ 수요일이 공휴일인 경우 발행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스페셜 에디션은 일로 발행됩니다.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는 풍성한 선물 이벤트, 실질적인 정보의 리서치 브랜드 갤러리, 품격 있는 라이프스타일을 제안하고 지원하는 다양한 콘텐츠를 준비하고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또 과월호를 언제 어디서나 온라인으로 구독할 수 있는 'E-magazine'이 여러분과 〈스타일 조선일보〉를 더욱 가깝게 만들어드립니다. 허시리 그 이상의 감각과 품격이 함께하는 〈스타일 조선일보〉 홈페이지, 지금 바로 방문해주세요. stylechosun.com



# it BAG

사철에서 아이코닉한 감성을 담은 백을 출시한다. 부드러운 랩 스킨에 격조로 들어간 스티치 양보 디테일이 돋보이며, 크로스 보드로 캐주얼하게 또는 이담한 사이즈로 웨어블하게 연출 가능하다. 사람들이 가장 사랑하는 블랙에 골드가 어우러져 모던하고 클래식한 느낌까지 선사한다. 체인에 사철 CC 로고 디테일을 더해 포인트를 주었다. 문의 080-805-9628, CHANEL.COM



# 빛나는 찬가

반클리프 아펠의 시그니처이자 모티브인 골드 비즈. 메종의 상징인 골드 비즈를 모티브로 한 새로운 베를리 주얼리를 선보인다. 특히 이번 컬렉션에서는 2008년 출시된 이후 최초로 칼라가 돋보이는 프레시 스톤을 다룬 것이 특징. 1970년대 후반에 반클리프 아펠이 탄생시킨 캐롤라인 라과 브레이슬릿에서 영감을 받아 무려 5개의 골드 비즈에 칼라 스톤이 어우러져 화려함을 배가하고 유쾌한 감성을 부여한다. 비대칭 디자인과 빛, 형태가 어우러져 펼쳐지는 매혹적인 또 하나의 베를리의 탄생에 빛나는 찬가를 보낸다. 문의 1668-1906



# PRECIOUS & EXCLUSIVE

까르띠에에서 새로 오픈할 까르띠에 메종 청담을 기념하기 위한 특별한 워치를 선보인다. 이듬하여 베누아 메종 청담 익스클루시브 에디션. 오리지널 베누아 워치 디자인에서 발전되어온 이 모델은 머더오브필 다이얼로 보다 우아하고 편안한 느낌을 주며, 다이아몬드 세팅 베젤로 화려한 분위기를 선사한다. 또 그린 및 레드 얼라게이터 레더 스트랩을 제공하는 최초의 베누아 워치로 다양한 연출이 가능하다. 총 30피스 한정 판매하며 각 모델 케이스 백에 각각의 리미티드 에디션 번호를 새겼다. 국내에서만 출시되는 이 워치는 까르띠에 메종 청담에서만 구매 가능하다. 문의 1566-7277

# INSIGHT

편집부가 엄선한, 국내 및 해외에서 각광받는 이들의 최신 트렌드 & 주목할 만한 소식들.



# Ruby Queen

(우부터) **부셀리타 밴드 링** 상채한 인그리아 링으로 구현한 특유의 골드 텍스처가 상징적인 줄리엔, 오벌 컷 루비를 강조하는 대담한 다이아몬드 장식의 문보이는 제품. 2천9백만원대, 문의 02-3440-5613 **프레드 샹스 인피니티 링** 무한과 영원을 상징하는 벨-스케이프 모티브의 유려한 곡선과 핑크 골드, 화이트 다이아몬드, 그리고 루비가 어우러져 우아한 매력을 발한다. 7백37만원, 문의 02-514-3721 **블라지 디바스 드릴** 오픈워크 네크리스 중앙에 페어형 루비 스톤이 포인트로 자리한 피스, 오픈워크 디자인으로 화려한 디버를 향한 경외와 섬세한 다이아몬드 패배 세팅이 여성스러운 품격을 함께 선사한다. 4천9백만원대, 문의 02-6105-2120 **포토그래퍼 박자용** 에티어 **이우미** 아시스턴트 **신영림**

# ROUGE FOREVER

에지 있는 칼라와 선명한 발색, 혁신적인 포뮬러로 많은 이들에게 사랑받는 디올 립스틱 루즈 디올에서 신제품을 출시한다는 반가운 소식. 울트라 피그먼트로 입술에 가볍게 밀착되어 묻어남 없이 오랜 시간 립 메이커업을 유지해주며 다양한 립 케어 성분을 함유해 입술에 충분한 수분감과 편안함을 준다. 매트한 질감의 케이스로 쿠티어링 감성까지 담은 새로운 루즈 디올 포에버 스틱을 만나보자. 3.2g 5만3천원대, 문의 080-342-9500



# PRADA



신뜻한 옐로 컬러를 품은 이지골프 폴로 셔츠  
29만5천원 제이렌드버그.

다이너스티 골드  
오픈 디자인 아방  
가죽 가방 제이렌드버그.

스피드를 장려해 인공적인 장벽을  
제거하는 유인스 투어 360 22  
2만 원 아디다스.

로즈 골드 메탈 링  
가죽 가방 사넬.

유인스 35T 볼 캐시.  
4.5x9.5cm, 2인칭  
아디다스 골프.

아이코닉한 모노그램  
패턴이 돋보이는  
베베용 백, 31x15cm,  
2만 원에 루이 비통.

스탈리아트 양모  
에타 아리아이

포인트 아이 템으로 활용하기 좋은  
부드러운 실크 소재 트윙클리 20만 원에 에르메스.

재활용 소재를 사용한 윈도드  
핀드 컬러 선글라스, 20만 원에  
산토리니에 페라가모.

유인스 신축성인 울링을 장려해  
W40T 투트 샷 매트 31만 원에 제이렌드버그.

여성용 베네티스 아류 30티드(에타비 가죽 미장품).

다-프루에(스니츠)  
가죽 미장품.

창원김 삼촌의 라이트 블루 울러머  
밴드 쇼츠 23만8천원 제이렌드버그.

M 버킷 클래식 허프 백  
35만 원에 일본 골프.

# Selection *for her*

푸르른 필드 위에서 더욱 빛을 발할 신뜻한 골프 웨어 스타일링.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레더링 카스타이아이가  
기능한 아이들용이주  
시디나차 백, 38x25cm,  
4만 원에 홍삼.



카프 레더로  
제작한 핑크  
글러브 5만8천원  
제이렌드버그.

제이렌드버그 02-3479-1900 다이아니 02-515-1924  
사넬 080-805-9628 아디다스 / 아디다스 골프 1588-8241  
에르메스 02-542-6622 홍삼 02-513-2288 레인메이커 골프 070-8899-3650  
산토리니에 페라가모 02-3430-7854 일본 골프 031-8060-0290  
제이렌드버그 02-953-4337 제이렌드버그 02-3218-7400 혼마 02-2140-1800  
디올 02-3480-0104 루이 비통 02-3432-1854



Autumn Winter 2022  
ferragamo.com

Salvatore Ferragamo



D1 스피드 몬스터  
골프 볼 가격 미정  
혼마.

HONMA  
5

코튼으로 제작된 레전드 로고 패턴  
11288원 **라본** **모자**

0.9mm 두께의 프레임  
500원 **다움** **안경**

캠스킨 패딩 카세트 패니백, 9.5x18cm,  
3색 3만원 **루이비통** **가방**

라이트 플루워 원형 티  
홀더 세트 5000원  
**레이메이커** **골프**

LV 러너 테릭  
스니커즈  
1백만원대  
**루이비통**

US 오픈 퍼포먼스 파케 플로 서츠 17만원대 **폴로** **골프**

스킨스톤 백, 19x30cm,  
75000원 **루이비통**

5000원 **레이메이커** **골프**

# Selection

for him  
홀인원의 행운을 가져다줄 멋스러운 라운딩 에센셜.  
photographed by choi min young

남성용 베이스 카탈리  
54 스틱 7만 000원  
가격 미정 **혼마**

프라이빗 스니커즈  
28만원 **루이비통**

상징적인 인타로된  
G 로고를 인그리밍한 상하  
링 45만원 **아디다스 X** **구찌**

백사 볼 캐시  
9x8.5cm, 20만원  
**팔람** **볼 캐시** **골프**

손목을 안정적으로  
잡아주는 UA 3인치  
퍼포먼스 손목 밴드 1만원  
**안다이어**

나일론 소재의 가볍고 실용적인  
보스턴 스타일 월재너백  
30x47.5cm, 25만 9천원  
**캠사이트**

푸마 080-082-0888  
안다이어 1577-9691  
구찌 02-3452-1521  
혼마 02-2140-1800  
일본 골프 031-8060-0290  
캠사이트 02-2007-2943  
보타가 배너타 02-3438-7682  
폴로 골프 02-6004-0220  
태그홀이어 02-3466-5700  
다움 맨 02-3480-0104  
루이비통 02-3432-1854  
제인트브그 02-3479-1909  
아디다스 골프 1588-8241  
레이메이커 골프 070-8899-3650  
팔람 볼 캐시 골프 02-3442-3087

# SWAROVSKI





### Exclusive Interview with\_안젤름 키퍼(Anselm Kiefer)

# 이 모든 낙하(落下)를 두 손으로 받아들이는...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의 신작이 서울에 당도했다! 아마도 대다수의 현대미술 애호가라면 이 문장 하나로 가슴이 설레기 시작했을지도 모르겠다. 특히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를 찾은 행운이라면 이 아름다운 고도(古都)에서도 유서 깊은 궁전인 팔라초 두칼레 전시장을 수놓은, ‘역대급’이라는 수식어가 따라다니 키퍼의 전시에서 비롯된 찬사를 아직도 ‘저장’하고 있지 않을까 싶다. 필자에게도 안드레아 에모(Andrea Emo)라는 베니스 철학자의 글에서 발췌했다는 긴 전시 제목의 글자들이 여전히 뇌리에 남아 있다. 방한이 무산되기는 했지만 프리즈(Frieze)와 KIAF를 내세운 아트 페어 주간을 앞두고, ‘주여, 가을이 왔습니다’라는 문장으로 시작되는,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명시를 비롯해 릴케의 작품에서 영감받았다는 작품들을 서울로 보낸 그와 ‘글로 주고받은 인터뷰를 아쉬움을 달랠다. “시는 바다의 부표와 같고, 나는 그 부표들을 오가며 헤엄친다”고 말할 만큼 ‘텍스트’의 힘을 추앙하는 안젤름 키퍼의 글이어서였을까. 마치 손편지를 받아든 듯 감흥을 즐기다가 이내 차분히 그의 문장들을 곱씹게 된다.

‘1945년생 독일 현대미술가’라는 수식어는 단순하고 건조하지만 아주 많은 함의와 연상을 지어낼 수 있다. 인류의 참담한 비극을 초래한 전쟁과 2차 대전국에서 방전기에 상징한 세대로서 예술가의 운명을 선택했다면 얼마나 큰 지적 갈과 고초에 시달렸을지, 뼈저린 공명은 무엇이라도 잡히기 어려웠을 않다. 20세기의 이념적, 정치적 격동의 중심에서 증폭된 갈등과 변인은 젊은 피들의 예술적 에너지를 폭발시켰고, 그 역동적인 흐름 속에서 안젤름 키퍼(Anselm Kiefer)라는 걸출한 인물이 나왔다. 흔히 ‘신비주의’의 가장으로 여겨지는 키퍼는 모국의 참혹한 역사적 기억을 정면으로 마주하면서 미우슈비츠를 다른 시(詩)를 소재로 삼고 전후 시대에 글기 시도된 논란적인 도상을 고집하는 파격 을 시도했다. 자연주의 어두운 상처와 인간의 본성을 들쭉날쭉하게 그리는 논란적이고 무겁고 불편할 수도 있었지만 그의 작품은 놀랄도록 아름답고, 슬프고, 때로는 송곳마져 느껴진다. 라이너 마리아 릴케가 가을 속 심상을 읊은 시에서 영감을 받았다는 신작 회화 13점과 이번 서울 전시에서 함께 선보인 전통 벽돌 설치 작품 역시 전후 독일의 폐허와 잔해 속에서 자란 그에게 아픈 상징이라고 한다. 하지만 그와 동시에 자연, 자연으로의 재순환 가능성을 상징하기도 한다. 그가 손수 고를 릴케의 시에 저울이는 가을처럼 세상 모든 것이 쇠락하고 스멸하는 운명을 피할 수 없지만 그 낙하(落下)를 양손에 받아들이는 존재가 등장하듯 말이다. 이번 전시를 앞두고 안젤름 키퍼와 주고받은 문답을 모두 공유할 수는 없지만 나름대로 요약한 내용을 소개한다.



**아름에 일어나면 늘 사(library) 산책에 나서는데, 운명처럼 ‘그날의 책’을 찾게 된다고 말씀하셨던 것을 책에서 접한 적이 있습니다. 서울 전시의 경우는 어떤가요? 이번 전시는 라이너 마리아 릴케(Rainer Maria Rilke)의 시에서 영감을 받았고, 전시 제목도 그의 대표작 중 하나인 ‘가을날(Herbsttag, 1902)에 나오는 구절을 인용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역시 어느 날 이쯤, 문득 영감으로 다가온 시인가요? 전가 때마침 가을을 코앞에 두고 있는 시점에 열리게 됐네요. Anselm Kiefer (이하 AK) 릴케의 시는 60년 동안 제 기억 속에 존재했었습니다. 제게는 읽을 수 있을 정도로 좋아하는 시가 많은데, 이 시들은 고스란히 제 안에 있다가 어쩌다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그렇지만 이번에 선보이는 가을을 주제로 한 작품과 전시 시점의 계절이 가을이라는 점 때문에 굳이 연관성을 두고 싶지는 않습니다.**

**작업의 시작점이 어떤 충격(shock)에서 비롯됐다고 한 인터뷰에서 언급하셨던 것도 기억합니다. 그런 충격을 받는 계기는 ‘사건(event)’이 될 수도 있고, ‘시(poem)’가 될 수도 있고, ‘풍경(landscape)’이 될 수도 있고요. 이번 전시를 위한 작업에서는 어떤 충격이나 계기가 있었나요? AK 이번 충격은 이 시리즈의 작품을 시작할 당시가 아니라 그보다 몇 년 전에 발생했습니다. 어느 가을, 런던의 하이드 파크에 있었는데, 햇빛이 아주 많이 내리쬐던 날이었습니다. 런던에서는 아주 보기 드문 특별한 날이었지요. 폭발하는 듯한 색깔과 압도적인 자연 경관에 정말 충격을 받았고, 수백 장의 사진을 찍었습니다.**

**시와 문화에 대한 당신의 한결같은 사랑을 잘 알고 있습니다. ‘파울 셀란(Paul Celan)의 글이 내래를 펼칠 수 있는 무대를 만들었다고 봐도 된다’는 표현을 쓰기도 했죠(안젤름 키퍼는 그가 많은 영감을 받은 것으로 알려진 유대계 독일 시인 파울 셀란에 한결같은 찬사를 열거도 했다). 수첩에 조각하듯 단상이나 짧은 에세이 같은 글을 담은 책을 펴내기도 했는데, 작업 시를 쓰기도 하십니까? 만약 다른 생이 주어지면 화보보다 시인이**



**되고 싶은 생각도 있나요? AK 그런 게 평생의 고민이자 갈등입니다. 글을 써야 할지, 그림을 그려야 할지, 같은 강도로 두 가지를 다 할 수는 없으니까요. 제가 열여섯 살 때, 프랑스에서 빈센트 반 고흐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여행 일기로 상을 받은 적도 있습니다. 물론 이것이 제 갈등을 완화해주지는 못했죠. 하지만 오늘은 분명히 말해야겠네요. 저는 ‘화가(painter)’입니다.**

**릴케는 한국에서도 명성 높은 시인이고, 가을날은 제 책상 시점에 일부 시구를 외웠을 정도로 자주 접한 유명한 시입니다. 이 시에 나오는 ‘지금 집이 없는 사람(Wer jetzt kein Haus hat)’이라는 대목을 이번 서울 전시 시명으로 채택했습니다. (여러 함의가 있을 수 있었지만) 주로 철학적, 문학적 암시라고 봐야 할까요? 현 세계 정세를 반영하는 사회·정치적인 맥락도 담겨 있는지요? AK 전 정치적인 사람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꼭 제 작품이 매일매일의 정치·사회적 뉴스와 연계되어 있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저의 주된 관심사는 사실 요즘 일에는 일들을 제가 어느 정도 예상했다는 점, 그래서 우크라이나 사태에 대해 놀라지 않았다는 점에 있습니다. 구소련이 붕괴했을 때, 사항과 미국이 유럽의 새로운 질서 확립을 위한 분투를 하지 않고 그들 스스로를 승리자라고 선언했을 때, 이미 세상이 잘 흘러가지 않더라는 건 예견 가능한 일이었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이런 기조는 러시아를 지방(province)이라고 선언한 오마미 정권에서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 이는 자신들이 협력해야 할 나라를 대하는 적절한 방식은 아니지요. 게다가 핵 앞에 승리하기가 어디 있을까요? 승자는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에 모국(homeland)을 떠났고(키퍼는 프랑스와 국경을 가깝다고 있는 독일 남서부의 작은 도시에서 1945년 태어났고, 1990년대 초반 독일을 떠났다), 이후로 주로 프랑스에서 거주해오셨습니다. 프랑스에 정착하신 이유가 있나요? 당신에게 ‘집(home)’은 어떠한 문화적 기억의 대상인가요? AK 저는 프랑스 건너편에 있는, 라인(Rhine)강 근처에서 자랐습니다. 그러다 보니 프랑스 문화와 광경이 가깝게 수백에 없었고, 강한 유**



**대감과 관계를 맺었습니다. 독일은 개인적인 이유로 떠났습니다. 집(home)이란 광경이 복잡한 개념으로, 보수파에서 주로 많이 거론됩니다. 안젤름 한번 이런 종류의 질문에 대한 적이 있는데, 독일에서 다소 도발적으로 제가 되었던 기억이 납니다. 제에게 집이란, 제가 기억할 수 있는 모든 것입니다.**

**최근 몇 년 새 파리 판테온(Panthéon)의 영구 설치 작품,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개막에 앞서 공개한 팔라초 두칼레의 대규모 전시 등 작업 여정에 방점을 찍을 만한 일이 많았던 것 같습니다. 저는 자연어를 팔라초 두칼레 전시를 볼 기회가 있었는데, 심지어 반 시간 넘게 홀로 감상하는 행운을 누렸죠. 과거에 ‘난 걸작을 만들 수 없을 것’이라는 말밖에 항상 빠져 있었다’고 토로한 적이 있는데, 그런 대저들을 내용은 다음에는 솔직히 어떤 느낌이 드는지 궁금합니다. AK 저는 결과가 제 기준에 결코 부응할 수 없다는 사실 때문에 늘 절망스러웠습니다. 지금은 다릅니다. 제가 작업을**

**1 Anselm Kiefer, Croissy, 2022 © Anselm Kiefer Photo: Georges Poncel 다가올해 베니스 비엔날레 최대 화제작으로 꼽은, 팔라초 두칼레 전시에서 선보인 작품 중 하나를 배경으로 시를 읽는 안젤름 키퍼. 전시 제목이기도 한 Questi scritti, quando verranno bruciaci, daranno finalmente un po' di luce라는 문장의 일부가 보인다. 베니스 철학자 안드레아 에모의 글에서 차용한 것으로 이탈리아어로 ‘이 글이 다 타버리고 나면 마침내 한 줄의 빛을 비추리라는 뜻을 지녔다. 2 파피와 창조의 순환을 담아냈다는 안젤름 키퍼의 베니스 전시 모습. 두칼레 공원은 해상 광역국으로 위세를 떨친 베네치아 총독(도제)의 주거지였던 상징적인 건축물이다. 전시는 오는 10월 29일까지. © Anselm Kiefer Photo: Georges Poncel Courtesy Gagosian and Fondazione Musei Civici Venezia 3 Anselm Kiefer, Femmes', Barjac © Anselm Kiefer Photo: Charles Duprat 키퍼의 작업실로 쓰였다가 지금은 그의 아이작님을 접할 수 있는 미술관 같은 명소가 된 스튜디오 안젤름 키퍼 바르자크(Studio Anselm Kiefer Barjac)에 설치된 작품. 4 Anselm Kiefer, 'The Seven Heavenly Palaces(2004~2015) Photo credit: Alessandro Cimmino / Courtesy Lia Rumma Gallery Copyright Anselm Kiefer Collection Prelli HangarBicocca 밀라노. 외곽에 있는 개관 미술 공간 파렐리 항구(마르카티) 영구 설치 작품이다. 공간이 암사(하타)어 회사 파렐리(Prelli)에서 운영하는 비영리 미술관으로 제 2차 세계대전 당시 연합군 폭격으로 폐허가 됐던, 그래서 키퍼의 작업과 깊은 정서성을 지닌 곳이다. 5 Anselm Kiefer, 'Uraeus'(2017~2018) Lead, stainless steel 756 x 1,120.1 x 880.1cm Installation view: Rockefeller Center, New York City, 2 May~22 July 2018 © Anselm Kiefer Courtesy Gagosian gallery 뉴욕 록펠러 센터 채플 거터에 설치된 키퍼의 거대한 조각 우라에우스(Uraeus). 날갯짓하는 독수리와 그 상체에 펼쳐진 책, 그리고 바위에 떨어진 책들이 자라는 풍경을 인상주의다.**

Wer jetzt kein Haus hat..., 2016~2022 Emulsion, oil, acrylic and shellac, lead and rope on canvas 190 x 330cm



전시 제목 (지금 집이 없는 사람) 전시 일정 2022년 9월 1일~10월 22일 전시 장소 타데우스 로프 서물

Wer jetzt kein Haus hat, baut sich keines mehr, 2022 Emulsion, oil, acrylic, shellac, lead and rope on canvas 190 x 280cm



Wer jetzt kein Haus hat, baut sich keines mehr, 2022 118 galerie and straw bricks 83 x 288 x 183cm

**시작하는 순간 그것이 파괴되리라는 사실을 알기 때문입니다. 오직 우상 파괴자/인식 타파주의자(iconoclast)만이 훌륭한 아티스트라고 생각합니다. 존재(being)나 무(nothingness)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시간의 순서(chronology)라는 것도 없죠. 동시에 존재하는 것들입니다. 이는 제가 6년 전에 발견한 안드레아 에모(Andrea Emo)의 철학입니다(베니스의 철학자. 올해 키퍼의 팔라초 두칼레 전시 제목 'Questi scritti, quando verranno bruciaci, daranno finalmente un po' di luce'는 안드레아 에모의 글에서 발췌한 것이다. '이 글이 다 타버리고 나면 마침내 한 줄의 빛을 비추리라는 뜻의 이탈리아어다. 저는 당시 그 문장을 알기도 전에 제 작업 방식이 그의 철학에 철저히 부응하고 있었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프랑스 남부의 바르자크(Barjac)에 있는 당신의 예전 스튜디오(작업실)는 그 자체로 장소 특장적 예술이라 할 만한 엄청난 규모와 요리를 지니고 있는 미술관 같은 공간입니다. 올해 이곳을 대중에게 개방해 화제를 불러오기도 했습니다(예약제로 관람 가능). 바르자크 스튜디오는 당신이 2016년 설립한 비영리재단(Eschaton-Anselm Kiefer)에 이미 기증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이 모든 계획을 예전부터 세우려고 세웠던 것인가요? AK 아니요. 그렇게까지 미리 세밀하게 계획을 세워두지는 않았습니다. 마치 제가 작업을 시작할 때 그 작품이 어떤 형태로 완성될지 절대로 모르는 것처럼요.**

**재단 이름에 들어 있는 'eschaton(에사톤)'이라는 단어는 '종말' 같은 종교적인 맥락으로 해석되기도 하는데, 어떤 의미로 넣었나요? AK 에사톤은 '시간의 종료를 의미합니다. 저는 제가 처한 상황을 종료 지점에 서서 바라보고 노력합니다. 릴케의 시구 중 이에 적합한 것이 있는데, '모든 이별을 앞질러라, 마치 그것이 네 뒤에 있었던 것처럼, 마치 네가 풍화사(岩)극복해낸 겨울처럼'이라는 구절이죠.**

**당신은 가을의 잔에서 태어나 소년 시절 상상의 미사를 듣는 복사(kaltar boy) 생활을 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구원을 받지 않는다고 밝힌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은 종교에 대한 생각이 어떤가요? AK 저는 어떠한 신조(교리(dogma)든 그 자체로 비논리적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회화를 떠난 이유는 1980년대 일어난 방코 암브로시안노(Banco Ambrosiano) 사건 때문입니다(버티칸 교황청이 최대 주주로 있던 이탈리아 지방은행의 파산 사건으로 '검은 거대' 의혹이 있었지만 아직도 진상이 제대로 밝혀지지 않). 당시 핵심 관련자 중 한 명이 런던의 한 다리에 매달려 숨진 것이 발견되**

Wer jetzt kein Haus hat..., 2016~2022 Emulsion, oil, acrylic and shellac, lead, rope, sediment of an electrolysis and chalk on canvas 190 x 330cm



전시 제목 (지금 집이 없는 사람) 전시 일정 2022년 9월 1일~10월 22일 전시 장소 타데우스 로프 서물

Wer jetzt kein Haus hat, baut sich keines mehr, 2022 Emulsion, oil, acrylic, shellac, lead and rope on canvas 190 x 280cm



Wer jetzt kein Haus hat, baut sich keines mehr, 2022 118 galerie and straw bricks 83 x 288 x 183cm

**우리는 원소로 이뤄진 땅 빈 존재, 결국 우주로 우회될 작은 알기된 벌이라는 당신의 말에 공감합니다. 그래서 모든 일에 대해 공허함을 느끼거나 냉소적이 되기도 하지만요. 그렇지만 그 '무(nothingness)'라는 것의 미학, 존재하면서 동시에 존재하지 않은 것의 아름다움에 대해서도 강조하셨죠. 당신의 관점에서 그럼에도 계속 나아가는'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AK 저는 노자의 일을 빌려 대답하고 싶습니다. '이득은 존재하는 모든 것에서 얻어지지만, 유용성은 없는 것(無)에서 생겨난다.' 또는 폴 발레리(Paul Valery)의 아름다운 문구를 인용할 수 있겠네요. '신은 무에서 모든 것을 창조했다. 하지만 아무것도 없다는 게 더 낫다.' 계속 나아가는 것이 과연 합당한지 스스로 묻는 게 아니라, 그냥 계속 나아가겠다. 왜 하려면 새로운 통찰력, 새로운 작품, 더 나아가 나 스스로 하는 일에 대해 놀라게 되는 것이 좋기 때문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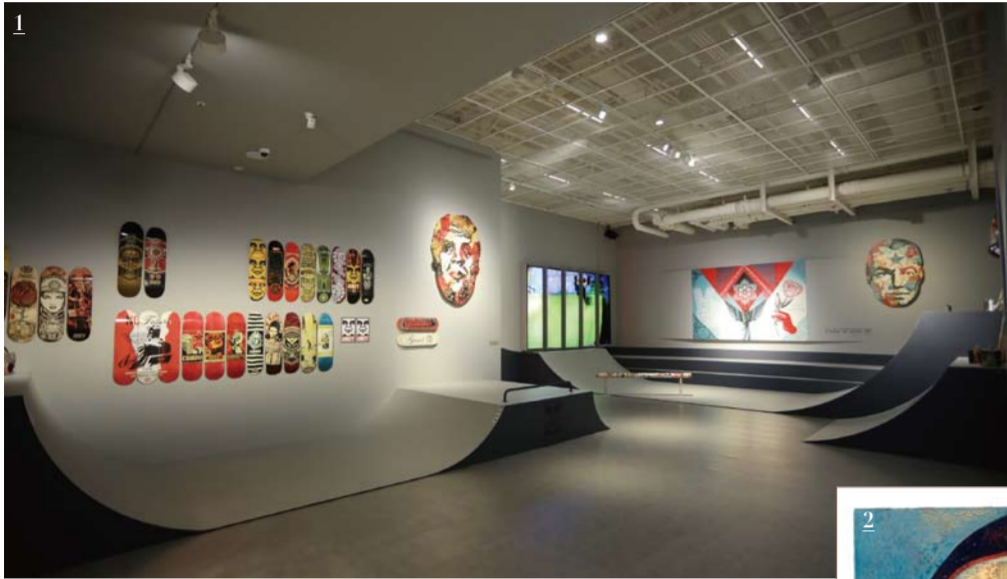
**예술은 당시에 있어 불가결한 존재이자 영적인 작업(process)이죠. 그림 예술과 내면의 자이를 깊이 파고드는, 평생에 걸친 무한한 투쟁의 여정에서 당신이 찾은 것, 그리고 실제로 보이는(발견한) 건 무엇인가요? AK 예술은 아름다움을 추구하는 것이며, 진실은 아름다움에 간질히 연결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결코 진실을 볼 수 없습니다. 단지 그것의 힌트만 있고 우리는 그저 가까이 갈 수만 있을 뿐, 진실은 가려진 채 비밀로 남아 있지요. 진실과 가까이에서 자라는 것, 그리고 세상과 가려진 지구 사이의 갈등을 견뎌내는 것은 아름다움입니다. 많은 노력을 들여 뭔가 성취했을 때, 그 성취와 우리를 움직이게 했던 열망이 일치하지 않는 경험을 누구나 겪을 수 있습니다. 실제로는 옮기기 전 단계에 무한한 결망이 있고, 우리 앞에 광활하고 통쾌하기 어려운 평야가 펼쳐져 있습니다. 저는 때때로 이러한 드넓은 평야를 작품으로 입증하기도 하지만, 다시금 무로 돌아가 부활을 기다립니다. 작품은 현존하고 사람들은 그 순간을 보지만, 동시에 그 작품의 부정(否定)을 깨닫게 되고 동시에 부활도 직면하게 되지요. 우리 자신이 존재하는 순간은 동시에 그 순간의 부정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그 순간이 끝나고 나면, 우리 기억 속에서 소생됩니다. 글\_ 인터뷰 고영선**





# 거리 예술의 반란 유쾌하되 진지하게!

한때 천덕꾸러기 취급받던 '그래피티 아트'가 미술관이나 일류 갤러리의 품 안으로 들어간 건 전혀 놀랄 만한 일이 아니다. 메인 스트림에 속하는 그래피티 아티스트가 소수인지라 여전히 차별받는다고 여겨질 수는 있겠지만, 어차피 '주류'에 들지 못하는 작가들은 장르를 불문하고 부지기수이며, 그 같은 분류법에 크게 신경 쓰지 않는 이도 많다. 지금 서울에서는 대형 미술관과 글로벌 갤러리의 전시장을 각각 개성 있게 수놓는 스타급 그래피티 아티스트들인 셰퍼드 페어리(Shepard Fairey)와 배리 맥기(Barry McGee)의 개인전이 열리고 있다. 둘 다 미국 캘리포니아(각각 로스앤젤레스와 샌프란시스코)에서 온 50대의 아티스트라는 공통분모를 지녔는데, 직접 만나보니 의외로 수줍은 면모가 포착된다는 점에서도 닮은 구석이 있지 않나 싶다.



## #셰퍼드 페어리(Shepard Fairey) <EYES OPEN, MINDS OPEN>展 롯데뮤지엄

그의 이름을 모르더라도 마치 저문처럼 따라다니는 몇몇 작품을 보면 "아~" 하고 고개를 끄덕이게 될 만큼 유명한 거리 예술가(street artist) 셰퍼드 페어리. 1970년생으로 1980년대 말부터 골목에 스티커를 붙이고 길거리 담벼락에 벽화를 그려서 세상과 소통하고 권위와 관습, 부조리에 저항적인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그는 장-미셸 바스키아와 카스 헤링 등을 잇는 거리 예술계의 2세대 작가로 분류될 수 있지만 정작 그 자신은 "내가 스트리트 아티스트라고 생각하면 안 되고 잘라 말한다. 물론 스스로를 그저 대중을 끌어당기는 아티스트(populist)라고 여긴다는 그의 부연 설명에 물음표를 다는 이들은 거의 없을 것이다. 한 시대를 풍미했던 거구의 프로 레슬러 안드레의 얼굴을 담은 회화의 스티커를 만든 것을 계로 '빅 브라더'를 연상시키는 '오베이 자이언트(Obey Giant)' 시리즈를 자신의 상징처럼 자리매김시킨 아티스트로 나중에는 여기에서 비롯된 인기 티셔츠 브랜드 '오베이'를 창립하기도 했으며, 가장 유명하게는 2008년 미국 대선 후보였던 버락 오바마의 초상화 포스터 작업으로 전 세계적인 인지도 얻은 '호프(Hope)'를 제작한 주인공이기도 하니 말이다. 하지만 오바마 포스터의 바탕이 된 원본 시전을 둘러싼 통상사 AP와의 양향한 저작권 소송으로 유명 세인들이나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야 했던 이력도 있다. '소송의 나라' 미국 출신인 그는 자신의 첫 주요 미술관 전시를 코앞에 두고 경찰한테 체포당하고 당초를 알고 있는데도 인술을 빼앗기는 수모를 당하기도 했지만 곳곳이 자신의 길을 걸어왔다. 평화와 발전, 환경 등의 이슈에 대해 목소리를 내면서, 롯데뮤지엄에서는 일종의 문화 코드인 셰퍼드 페어리의 30년 넘는 예술 여정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초거부터 영상, 사진, 벽화, 스케이트보드 등 무려 4백70여 점의 작품을 아우르는 대규모 전시를 펼치고 있다. 특히 그의 '오베이 자이언트' 캠페인 초기 시리즈와 자신이 즐겨 쓰는 도상을 활용해 서울 시내 건물 다섯 곳에 걸쳐 회화와 환경 등을 주제로 한 벽화 작업을 전시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석촌호수 문화실험공간 호수, 상수동 퍼킨스 도원, 배우 정우상과 이장재가 이끄는 아티스트 컴퍼니 오버 등이 포함돼 있다. 그의 인생 철학과 작업 세계를 더 자세히 들여다보고 싶다면 롯데뮤지엄 전시장에 서상영도는 다큐멘타리를 챙겨볼 것을 권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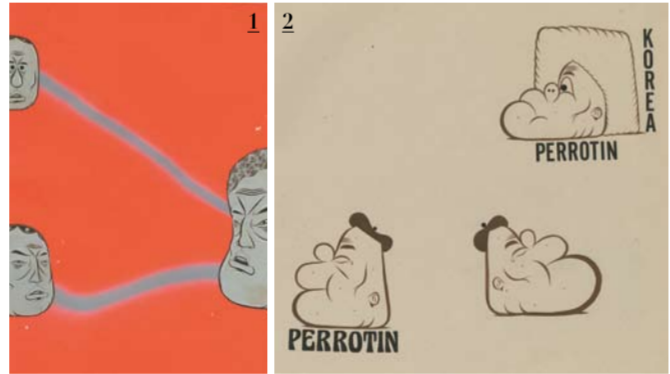
전시명 <EYES OPEN, MINDS OPEN>  
전시 기간 11월 6일까지  
홈페이지 <https://lottemuseum.com>

## #배리 맥기(Barry McGee) <Everyday Sunrise>展 페로탕 삼청

얼마 전 페로탕 삼청장에서 막을 올린 개관전을 위해 한국을 찾은 배리 맥기의 인상은 지난 7월 말 롯데시네마 월드타워에서 진행한 셰퍼드 페어리 아티스트 토크에서 보았던 진솔하고 다정다감한 면면을 대견했다(공정관측 의미에서 그렇다). 휴가 중에 집을 내 들른 필자에게 그는 이렇게 자신의 전시를 (서울) 사람들이 보러 와줄 줄 몰랐다고 수줍게 말했다. 그의 진중한 태도를 접하지 않았다면 이 말만 듣고는 지리한 결손이다 못해 가식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었을지 모른다. 배리 맥기는 거리와 미술관의 경계를 허문, 흔히 '주류'라 일컬어지는 미술계의 양자, 그것도 뮤지엄과 갤러리의 양쪽에서 꾸준히 인장과 환영을 받아온 작가이자, 로런스 린더의 평문 글을 인용하자면, 배리 맥기는 직업관에 있어 반체제적 태도를 스스로임이 드러내며 예술계의 표본과 기대에 순응하기를 거부해왔지만, 그럼에도 그가 화면에 담아내는 섬세한 선과 형태, 색감에는 경이로운 수준의 우아함과 표현력이 묻어 있기 때문일 것이다. 예술 오버제를 대하는 통상적인 방식을 뒤집고 '비주류' 세계에 서 얻은 복잡한 문화적 레퍼런스를 녹이는데도, 빼어난 미적 완성도와 창의적 기교 덕분에 '얼리' 시장에서 소비되어왔다는 얘기도 작가가 의도하지 않았더라도 말이다. 필자도 꽤 오래 간부채운 물건 중 그의 트레이드마크 같은 눈이 축 늘어진 얼굴들(heads)이 새겨진 하드보드지 초대장이 있는데, 흰가이트 있으면서도 섬세한 표현력에 늘 매력을 느꼈지만 정작 그 작품의 창조자가 이렇게도 수줍은 많은 캐릭터일 줄은 상상하지 못했다. 셰퍼드 페어리에게 스케이트보드와 펑크록이 있듯, 배리 맥기에게는 '서핑(surfing)'에 대한 무한 애정이 자리하고 있음은 명백히 보였다. 우연히 서핑 애기를 꺼내자 그는 이미 양원에서 서핑을 하고 왔으면서 눈을 빛내며 조곤조곤 말을 이어갔다. 작은 도록에 귀여운 그래피티 그려주는 친절한 맥기 씨의 이번 전시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그가 애써서 서브컬처 지지와 결합해, 그리고 평단의 사랑까지 두루두루 받는 자를 누르는 정도는 가능하게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다.

전시명 배리 맥기(Barry McGee) <Everyday Sunrise>  
전시 기간 9월 8일까지  
홈페이지 <https://www.perrotin.com>

1, 2 서울 삼청동에 위치한 페로탕 서울 갤러리에서 열리고 있는 배리 맥기(Barry McGee) 작가의 개인전 <선반 2022년 신작평면 작품의 부분 이미지들>. © Barry McGee / Courtesy of the artist, Perrotin, and Ratio 3, San Francisco. 3 미국 샌프란시스코 주 무디로 활동하는 배리 맥기 자신의 전시 작품을 배경으로 포즈를 취하고 있다. 수줍은 표정을 짓고 있기도 사랑과 정열을 매장 애를 향한 눈을 반짝인다. Photo by SY Ko 4 이번 페로탕 갤러리 전시는 규모가 크지는 않지만 평면 작품은 물론 오버제, 설치 작품, 서핑 보드 등 다양한 작품을 아우르는 배리 맥기의 직업 세계를 집중적으로 접할 수 있다. 1, 2, 4 이미지 제공: Galerie Perroti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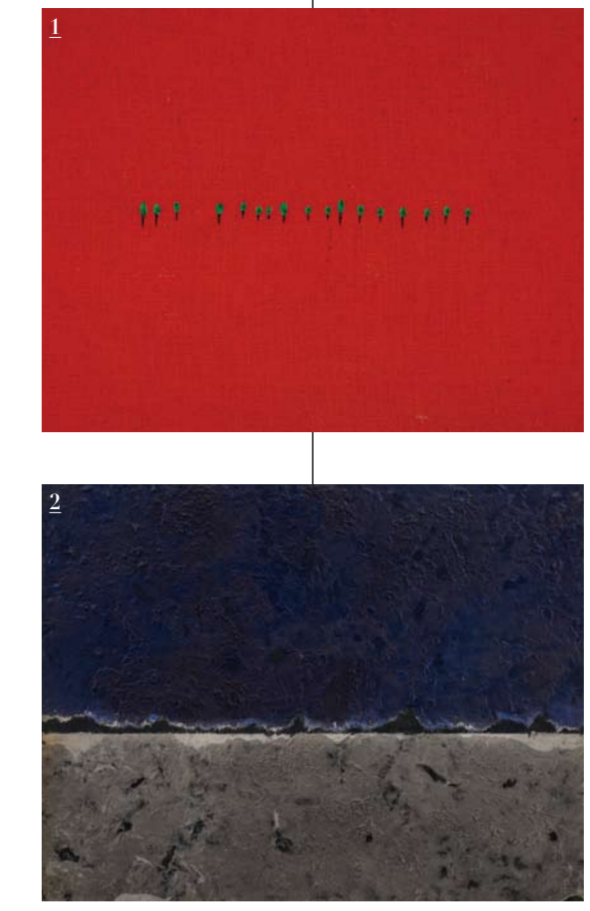


## #초대형 행사 맞이하는 서울로 쏠리는 미술계 이목

프리즈(Frieze)는 2003년 런던에서 도심 속 공원의 텐트를 장터로 삼아 출발한 아트 페어로 미국 뉴욕과 LA로도 진출하며 글로벌 브랜드로 성장했다. 흔히 아트 바젤, 파우(FAO)과 함께 글로벌 3대 아트 페어로 불려왔다. 하지만 오는 10월 아트 바젤에서 파리를 상징하던 파리를 대신해 Paris+, par Art Basef을 론칭할 예정이라 이제는 사실상 '2기'라 할 수 있다. 프리즈의 서울 입성은 첫 아시아 시장 진출이라는 점에서, 그리고 20년 넘는 역사를 지닌 국내 대표 아트 페어 KIAF와의 공동 개최라는 점에서 여러모로 화제를 불러일으켰다. 코엑스에서 편을 팔자는 프리즈 서울(www.frieze.com)과 키아프(www.kiaf.org)에는 각각 1백10여 개 갤러리와 1백64개 회랑이 참가하고, 신성 화랑이나 젊은 작가 중심으로 '7기'로 불리는 새 위성 페어(9월 1~5일)도 SETEC에서 따로 열린다. 유례 없는 블록버스터급 행사를 앞두고 기대도 크고 우려도 많지만, 요즘 한국의 미술 시장 분위기를 보노라면 프리즈 호파라는 단어를 떠올리지 않을 수 없다. 행사 결과야 누구도 알 수 없는 법이지만, 미술 축제들 둘러싼 온갖 행사가 쏟아지는 풍경만 봐도 사전 예매 작업만큼은 충분히 흥미롭다. KIAF-프리즈는 공동 티켓 체계를 택했는데, 장가 대비 20% 저렴한 '얼리 버드' 티켓 판매는 이미 매진으로 갈무리됐다. 일반 티켓(7만 원)으로는 VIP 프라뷰(2일)를 제외한 9월 3일부터 6일까지 양 페어를 모두 관람할 수 있고, 프리즈는 5일째 막을 내린다) 당일 내에는 재입장 가능하며, 프리뷰 티켓(20만 원)으로는 3~6일에 원하는 만큼 중복 관람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접할 수 없던 메가 갤러리(고인산, 허유자,전원익, 최지현,류근 등)가 프리즈 서울에 처음 부스를 차려 시선을 모으고 있기도 하지만, 몸집과 스펙트럼을 키운 키아프의 도전도 주시할 만하다. 공동 개최된 만큼 키아프와 프리즈는 이번 미술계 이슈를 논하는 토크 프로그램도 3일에 걸쳐 하루 3회씩 함께 진행한다. 한국의 가장 예술가 3인(박지현, 박경진, 정희승)과 떠오르는 신인 예술가 3인(유재민, 이우성, 김경태)이 짝을 지어 예술적 대화를 나누는 영상 시리즈(1우 & 박지현)를 선보이는 사설 코리올을 비롯해 국내 회화의 대표 작가 전시는 후하는 생 로랑(이배), 루이(김중학), MCM(최정화) 등 명품 브랜드들이 프리즈 워드에서 펼쳐는 아티스트와의 협업 행동도 눈길을 끈다.

## #풍성한 볼거리 선사하는 역대급 '장'의 행사들

그런데 사실 굳이 아트 페어 자체를 찾지 않더라도 미술 주권을 즐길 수 있는 방법은 많다. 공식 개관에 앞서 각종 연계 프로그램을 내세운 '프리즈 워드'가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갤러리, 아트 센터, 미술관, 그리고 여러 브랜드 차원에서 다양한 콘텐츠를 경쟁적으로 선보이고 있기 때문이다. 우선 '2022 프리즈 필름'을 주목할 만하다. 서울과 미국 로스앤젤레스를 기반으로 활동하는 비영리 예술 단체 WESS(웨스)와 GYOPO(교포)가 공동 기획한 '2022 프리즈 필름: I Am My Own Other' 프로그램으로, 한국과 여러 한국계 디아스포라 예술가/팀의 영상 작업 10점이 오는 9월 7일까지 경복궁 근처의 '통의동 맥킨지'를 8월 31일~9월 7일과 '투게더투게더(9월 2~7일)에서 진행된다. 강



## 남에 위치한 코엑스 전시장과 멀리 떨어진 서울의 두 지역(남동, 삼청동)에서 열리는 2인 1관 전시 프로그램도 눈여겨볼 만하다.

9월 1일에는 갤러리 바톤, 리만미, 테데우스 로파크, 휘슬, P21, 페니스 갤러리 등이 참여하는 '한남 나이트', 9월 2일에는 국제갤러리, 갤러리 현대, 완한재이, 학교재, 페로탕, PKM 갤러리 등이 동참하는 '상형 나이트'가 열린다. 이에 공간을 새로 꾸민 갤러리도 있다. 세계적인 갤러리 페로탕은 삼청동에 이어 2호점인 페로탕도 산파크의 문을 열며 펠릭스 개인전(《Luminarium》)과 함께 열었고, 알지 않은 창동동에 벽화 전시 공간을 둔 '보다 갤러리(VODA Gallery)'가 나이지리아의 항구도시 라고스에서 활동하는 5인의 작가로 구성된 그룹전(《From Lagos to Seoul》)을 진행하고 있다(9월 30일까지).



국내에 바로 전시 공간이나 물리적 거점을 두지 않았지만 프리즈-Kiaf 주간을 틈타 서울 나들이를 하는 사례도 눈에 띈다. 올해 베니스 비엔날레에 이미 레 작품을 소개하는 데 한몫했던 타미르 갈리리는 앤드루 크랩스 갤러리, 보르틀라미 갤러리와 함께 개최하는 뉴욕 화랑(좁을 들여다볼 수 있는 가다 아메르(Ghada Amer) 개인전(《Paravent Girls / 파리엔트 걸》을 송원트센터에서 연다(8월 30일~9월 15일). LA를 기반으로 한 데비드 코단스키 갤러리는 오는 9월 5일까지 이태원에 위치한 스튜디오 콘도트스트에서 후아 비바, 제니퍼 쿠디, 매슈 브래너든 13인의 소속 작품을 소개하는 팝업 전시를 진행한다(프리즈 서울에서는 칼빈 마카스의 단독 프리젠테이션 부스를 꾸민다). 주요 경제사의 기획전에 눈에 띈다. 세계 양대 경제양대 크리스티는 홈아트와 손잡고 서울 분다상 창동에서 시대의 아이콘 연을 나란히 조명하는 전시를 단 3일만(9월 3~5일) 개최해 화제를 모으고 있다. 가장 프랜시스 베이컨(Francis Bacon)과 아드리안 겐(Adrien Ghenie)의 작품 16점을 선보이는 기획전(《Flesh and Soul: Bacon/Ghenie》)로 비경에 전시한 가지로 환상하면 4인4차원달라(5천5백여원에 추산)되고 한다. 베이컨의 유명한 교황 시리즈와 2차 세계대전의 폭력과 억압, 문화적 폭정을 그린 겐의 눈개울이 없는 눈(Lidless Eye)과 '컬렉터 3(The Collector 3)' 등이 포함된다. 홈페이지 [www.christies.com/fleshandsoul/kr](http://www.christies.com/fleshandsoul/kr)를 추천한다. 필립스 옥션은 더 아티스트 토크와 더불어 영국을 포함한 다양한 국가에서 활동하는 신진, 중견 예술가 23인이 낭만주의에 대해 재해석한(《뉴 로맨티스(New Romantics)》)전을 이우진 갤러리에서 개최한다(8월 31일부터 9월 6일까지). 한국 갤러리들 사이에서도 인기 높은 헤르만 바스를 비롯해 캐서린 번하드, 애니 모리스 등 동시대 미술계에서 주목받는 작가들, 그리고 영국 국립초상화미술관에서 젊은 예술가상을 받은 에이미 흡스를 위한 주목할 만한 신진 작가전을 접할 수 있다. 글 곽성연



# Kiaf SEOUL Frieze Seoul 2022

올 하반기 미술계를 들쭉인 아트 페어 주간이 활짝 펼쳐지고 있다. 9월 2일 서울 코엑스(COEX)에서 나란히 막을 올리는 프리즈 서울(Frieze Seoul, 2~5일)과 키아프 서울(Kiaf SEOUL, 2~6일)을 앞두고 하나둘씩 행사가 열리기 시작했다. 다채로운 세부 프로그램도 공개되면서 많은 미술 애호가와 문화 향유자의 눈길을 사로잡고 있다. 지난해 한국화랑협회에서 세계적 아트 페어 브랜드인 프리즈와 Kiaf의 공동 개최를 선언하면서 큰 관심을 끌었던 초대회 행사도 드디어 윤곽을 드러낸 것이다. 더불어 9월 초에는 부산비엔날레까지 개막하기에 한국의 미술 생태계는 후끈 달아오르고 있다.

# Whist Check

볼드윈 브레이슬릿 하나면 심플한 복에 강렬한 인상을 남길 수 있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워터티 부활티 마크리 브레이슬릿** 볼드윈 골드 밴드에 화이트 골드와 브레이슬릿 컷 다이아몬드로 만든 장식으로 화려한 포인트를 준 브레이슬릿 3천원. 문의 02-3440-5613

**타미니 엘사 파우더™ 스톤 볼 카본** 1974년부터 타미니와 협력한 디자이너가 파우더 컬렉션의 핑크로 18K 옐로우 골드 소재를 활용하여 뛰어난 느낌의 디자인을 완성했으며, 볼드윈의 모던하고 현대적인 감각을 선보인다. 가격 미정. 문의 02-6250-8620

**반클리프 아펠 베를리 브레이슬릿** 상아색 골드 비즈를 5줄로 엮어낸 브레이슬릿. 베를리 라인 중 가장 볼드하고 화려한 재치를 자랑한다. 18K 옐로우 골드 소재를 사용했다. 1천1백만원. 문의 1668-1874

**피아제 파자신 오픈 핑크 브레이슬릿** 아이코닉한 회전 모브먼트를 담은 파자신 컬렉션의 브레이슬릿으로 18K 핑크 골드를 두 번 감아 착용에 심플하면서도 눈에 띄는 포인트를 연출할 수 있도록 했다. 1천1백만원. 문의 02-2231-1592 에디터 생영민

다. 1천1백만원. 문의 1668-1874

**발리 비제윈의 디자인 레전드** 대담하고 7행렬적인 디자인과 자화 하이드의 유연한 곡선이 절묘한 조화를 이뤄 강렬하고 볼드한 느낌을 선사한다. 로즈 골드 소재에 나뭇잎으로 다이아몬드를 풀에 세팅해 화려함을 더했다. 3천2백만원. 문의 02-2026-0170

**가르디에 에르무 드 가르디에 브레이슬릿** 나뭇잎과 베를리 영감을 받은 에르무 컬렉션의 브레이슬릿으로 상아색 골드 디자인에 웨이브 패턴이 도가성 있는 연출을 돕는다. 리프와 나뭇잎의 대담한 감성 7행렬과 자유를 상징한다. 9백만원. 문의 1566-7277

**스티븐 할스워 스 볼드 브레이슬릿** 유려한 곡선형 밴드가 과거부터 손목 위에 우아하게 자리 잡는다. 18K 로즈 골드와 화이트 다이아몬드 1.57카트를 세팅해 손목이 움츠릴 때마다 아름다운 광택을 뿌려 준다. 1천9백만원. 문의 02-2231-1592 에디터 생영민

# her finest

일상의 순간을 밝혀주는 스몰 주얼리 워치.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워터티 시계 반대 방향 반클리프 아펠 스위트 알함브라 워치** 네일 클러버에서 영감을 얻어 생생하게 디자인한 곡선 형태로 행운을 상징하는 알함브라 컬렉션. 화이트 머더오브필 다이얼 위 4개의 다이아몬드 인덱스가 은은하게 빛나며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골드 비즈 디테일을 더한 핑크 골드 케이스에 글로시한 다크 버건디 옐리게이트 스트랩을 매치해 우아한 품격을 완성했다. 9백30만원. 문의 1877-4128

**부쉐론 사뮈엘 보렐 다이아몬드 워치** 풍요, 자비, 불멸과 장수를 상징하는 뱀을 모티브로 한 매력적인 컬렉션. 매중 특유의 우아한 볼륨감이 느껴지는 골드 비즈 장식 케이스가 특징이다. 고정밀 쿼츠 무브먼트를 장착했으며, 옐로 골드 케이스에 화이트 블라시드 사틴 스트랩을 매치해 도화적인 매력을 더했다. 1천만원. 문의 031-5170-1177

**피아제 라모나이트 갈라 워치** 1970년대 여인들의 우아한 스타일과 자유분방한 정신을 잇는 피스. 스웬들이 모양의 핑크 골드 케이스의 감각적인 곡선과 세미 주얼 세팅에서 모던하고 유쾌한 매력을 느낄 수 있다. 자체 제작 쿼츠 무브먼트 599에서 동력을 얻으며, 약 40시간의 파워 리저브 기능도 갖는다. 2천만원. 문의 1668-1874

**쇼에 호텐시아 에덴 시계 스몰 모델** 생생하게 커팅한 라운드 브릴리언트 컷 다이아몬드와 플라워 아틀리케 장식, 그리고 나뭇잎 모양 나뭇잎 프랑스 장원의 생동감 넘치는 아름다움을 표현했다. 18K 핑크 골드 케이스와 조화를 이루는 말라카이트 다이얼은 감각적인 매력을 더해준다. 케이스 밖에는 수국 장식을 새겨 특별함을 더했다. 1천9백30만원. 문의 02-3442-3359

**부셀루티 마크리 글라시카 카프 워치** 실크처럼 한 줄 한 줄 직접 손으로 새기는 작업을 통해 완성되는 특유의 라파엘라 세공 기술을 옐로 골드 밴드에 얹어 우아한 재치를 드러낸다. 아가에 다이아몬드의 대담한 세팅으로 매력적인 디자인을 그리는 피스. 화이트 머더오브필 다이얼 위에 다이아몬드 인덱스를 올려 감각적이고 우아한 빛을 발한다. 2천9백만원. 문의 02-3440-5613

**가르디에 랜더 드 가르디에 워치** 카보숄 컷 다이아몬드 크라운과 검 모양의 핸즈 디자인이 하나의 아이콘이 되어 개성을 드러내는 모던 피스. 보는 각도에 따라 색다른 빛을 발하는 골드 불림 & 브라운 그라데이션 다이얼이 감각적인 매력을 부여한다. 아가에 유기적으로 연결된 브레이슬릿의 부드러운 흐름에서 생생한 매력까지 느낄 수 있다. 가격 미정. 문의 1877-4326

**다움 타임피스 라 디 드 다움 로즈 샬레스트** 정교한 기술력과 대담한 창의성이라는 다움 주얼리의 정신을 구현한 컬렉션. 자개 다이얼에 정교하게 조각한 매달 소재 태양 장식을 돌리고 태양의 눈에 세팅한 다이아몬드가 빛나며 매력적인 아름다움을 연출한다. 아가에 은은하게 빛나는 블랙 사틴 스트랩을 매치해 우아한 품격을 완성했다. 8백30만원. 문의 02-3480-0104 에디터 이주이



# Modern Girl

모던함과 우아함이 공존하는 랄프 로렌 컬렉션과 워치 & 파인 주얼리로 완성한 2022 F/W 베스트 룩. photographed by **chae dae ha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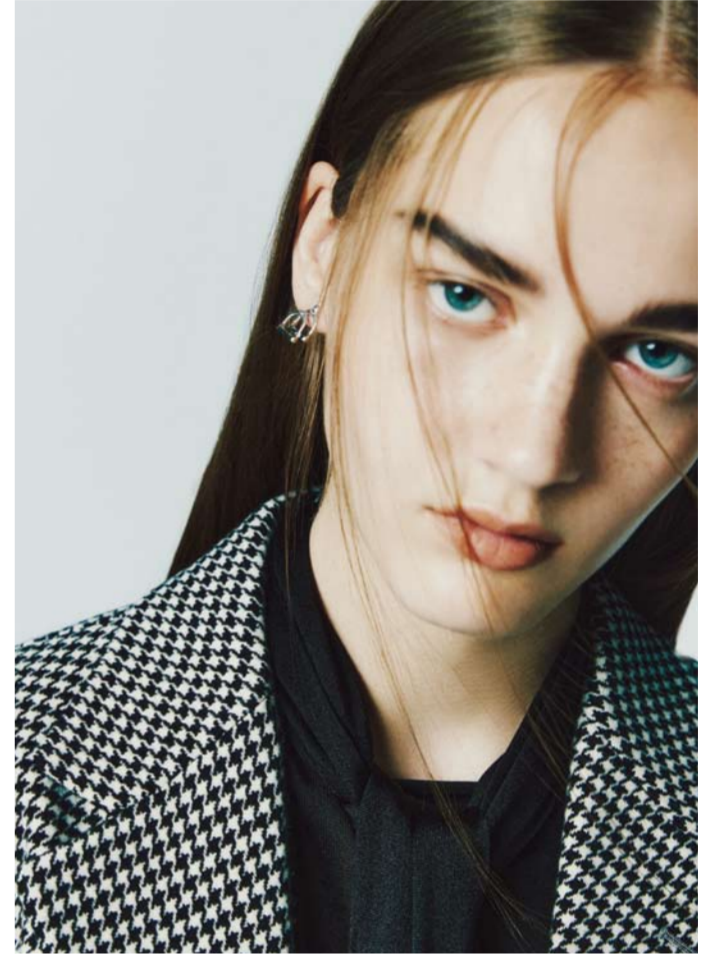
레디 소재 플라워 브로치와 우븐 칼라가 돋보이는 크레이프 소재 스웨터 드레스 3백20만원대 **랄프 로렌 컬렉션**, 스틸링 실버 소재의 더블 스타랩 밴클 1백10만원대 **랄프 로렌 워치 & 파인 주얼리**.



메리노 울 소재의 하운즈투스 V넥 스웨터 1백40만원대, 카디건 2백20만원대, 펜슬 스커트 1백30만원대, 실크 소재의 트리아 앵글 모티브 네카치프 30만원대, 레디 소재 스트레치드 힐 가격 미정  
모두 **랄프 로렌 컬렉션**, 스틸링 실버 소재의 더블 스타랩 모티브가 돋보이는 100원 40만원대, 더블 스타랩 브레이슬릿 80만원대 모두 **랄프 로렌 워치 & 파인 주얼리**.



스퀘어 디자인의 네크라인이 돋보이는  
울 크레이프 소재 재킷 2백90만원대,  
태입로링 디테일의 울 소재 맨츠 1백20만원대,  
카프 스킨 소재의 스카치 트랜치 벨트  
30만원대 모두 **할프 로렌 캄백션**.  
스텔링 샬버 소재 스타덤 네크리스  
1백10만원대 **할프 로렌 워치 & 파인 주얼리**.



울 캐시미어 소재의 하운즈투스 코트 3백80만원대, 실크 소재 스카프 넥 톱 1백90만원대 모두 **할프 로렌 캄백션**. 스텐링 샬버 소재의 더블 스타덤 이어링 40만원대 **할프 로렌 워치 & 파인 주얼리**.



왼쪽 옆의 RL 비즈 패치가 포인트인  
 캐시미어 소재 타블락 스웨터 1백90만원대,  
 포플린 셔츠 80만원대, 울 크라이프 소재  
 하운즈투스 조거 팬츠 1백40만원대, 클래식  
 패턴 울 보디에 카프 레더 라이닝을 더한  
 엘문틴 크로스 보디 백 1백70만원대 모두  
**할프 로렌 캠펙션**, 프티 링크 스틸 스타일 워치  
 3백40만원대 **할프 로렌 워치 & 파인 주얼리**.



랩 스킨 버튼 다테입을 기미한  
 울 트워드 하운즈투스 재킷 3백20만원대,  
 코튼 포플린 셔츠 80만원대,  
 캐시미어 저지 소재의 타블락 스웨터  
 1백40만원대, 태입크림 다테입이  
 돋보이는 울 소재 팬츠 1백20만원대,  
 RL 로고 버클이 포인트인 카프 레더 벨트  
 30만원대 모두 **할프 로렌 캠펙션**,  
 문의 02-3467-6560

헤어 최은영  
 메이크업 사이클  
 모델 **Nadya Konkova**  
 어시스턴트 신장임  
 에디터 성장민

# 2022 F/W Trend Report for women & men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면서 시각적으로 화려하거나 장식적인 요소가 다시 두각을 드러내기 시작했다. 시퀀이나 시스루 등 반짝이는 소재와 대담한 실루엣, 그리고 다채로운 컬러 팔레트의 향연이 반갑기만 하다. 다양성이 부각되면서 페미니즘에 대한 정의가 재확립되는 등 하나의 취향이라는 단순한, 심지어 고리타분한 개념에서 벗어나 '멀티 페르소나' 혹은 '젠더리스 코드' 개념이 각광받고 있다. 타인은 물론 자기 자신 역시 하나의 아이덴티티로 한정하는 시대는 지났다. 오늘은 보며 재킷으로 쿨한 아웃핏을 연출하고 내일은 시스루 드레스로 센수얼한 드레싱을 즐기며, 그다음 날은 프레피 룩으로 한껏 사랑스러워진 자신의 모습을 만끽해보는 건 어떨지.

## Trend 1. Robe Life Still Goes On

엔데믹 시대가 도래하고 다시금 차려입기 시작한 이때, 일부는 여전히 #로브라이프를 갈망할 것이다. 앞서 파워 숄더와 아워글라스 실루엣이 몸에 긴장감을 부여한다면, 부드러운 어깨 구조감, 벨트와 감기는 고급스러운 옷감, 그리고 곡선의 솔라벨로 정의되는 이 스타일은 기본 좋은 편안함과 안정적이고 여유로운 에티튜드를 부여한다. 다올과 브리오니에서는 고급 캐시미어 소재를 기반으로 완벽한 테일러링으로 완성된 클래식하고 우아한 버전을 찾아볼 수 있었고, 베르사체에서는 패턴과 컬러 블로킹을 적극 활용한 보다 대담한 스타일을 선보였다.

## Trend 2. Tux for Women & Men

시크함의 절정에 있는 르 스모킹 룩의 매력이 끊임없이 지속되는 이유는 결코 우연이 아니다. 턱시도를 입은 여자는 뭔가 달라 보이니까. 특히 화이트와 블랙, 그레이로 이뤄진 모노크롬 팔레트를 기반으로 핀스트라이프, 글렌 체크, 하운즈투스에 이르는 고전적인 패턴에 실크에서 캐버딘에 이르는 다채로운 소재의 활용과 과감한 클리비지 라인, 다양한 컷 & 손 디테일로 텍스처 새로운 변수를 부여한 랄프 로렌 컬렉션에서는 여성 턱시도의 완벽한 비율의 정점에 도달했다고 할 수 있겠다. 남성 턱시도에서도 기존 개념과 차별화되는 좀 더 과감한 실루엣의 활용이 돋보이는데, 여성스러운 실루엣으로 강조된 아워글라스 스타일이 남성복에 대거 적용되었다. 또 고전적인 더블브레스트 재킷과 결합한 쇼트 재킷 스타일부터 블레이저, 그리고 롱 코트까지 각 시대를 대표하는 아이코닉한 룩으로 시대와 젠더를 아우르는 폭넓은 스펙트럼을 보여주었다.

## Trend 3. White Tank

이번 시즌 단 하나의 아이템을 선택해야 한다면, 그건 단연 화이트 탱크 톱! 보테가 베네타에 새롭게 합류한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마티유 블라지는 이 싱글 아이템에 데님 팬츠를 매치한 캐주얼 클래식 스타일을 선보이거나 슬릭한 레디 트라우저 또는 태슬 장식의 재치 있는 스커트를 매치해 마치 드레싱업한 듯 도회적인 스타일링을 제안했고, 프라다는 아이코닉한 삼각 로고를 탱크 톱에 더하고 오버사이즈 보머 재킷과 시스루 스커트를 매치해 반전 매력을 더했다. 다양한 커팅과 연출 범으로 화이트 탱크 톱의 매력을 무한대로 확장한 디자이너들의 시도를 따라 해 보면 어느새 새로운 계절에 빠져드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 Trend 4. The Power Shoulder

엑스트라 파워 숄더는 이번 시즌 여성 컬렉션과 남성 컬렉션 구분 없이 눈에 띄는 실루엣이다. 풋볼 게임에서 불법한 라인백에 어깨 라인에 가까운 과장된 라인들이 발렌시아가를 위한 탱나의 초기 컬렉션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특히 프라다 컬렉션에서 발견할 수 있는 트랜치 스타일 재킷과 코트가 이번 시즌 가장 크고 대담하면서도 날카로운 어깨 라인을 강조하고, 톨레젠가바나 루이 비통은 화려한 소재와 컬러풀한 옵션을 제안한다. 다소 심하게 과장된 어깨 라인과 대비되는 슬림한 하의 라인이 비현실적으로 느껴지지만, 실루엣과 소재 자체의 강렬한 매력으로 1980년대를 아우르던 컨템퍼러리 감성의 분위기를 연출한다.



Tux for Women & Men. RALPH LAUREN



Head to Toe Knitwear. TOD'S



Head to Toe Knitwear. SALVATORE FERRAGAMO



90s Prep. MIU MIU



90s Prep. DIOR MEN

## Trend 5. Head to Toe Knitwear

혹한의 날씨 속에서 포근한 온기를 유지해주는 친숙한 니트 아이템은 일상성을 해치지 않는 범주에서 짜임의 다양한 변주와 패치워크의 적극적인 활용으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한 컬렉션을 이룬다. 카디건과 스웨터 드레스, 투피스 등 다양한 아이템을 아우르며 폭넓은 옵션을 이루는데, 특히 이번 시즌에도 바라클라바 (복면의 인기는 계속될 전망이다. 특히 구찌 컬렉션에서는 청키한 짜임의 니트 카디건과 투피스로 매치한 롱스커트, 그리고 바라클라바를 매치한 헤드 투 투 스타일을 엿볼 수 있었으며, 실바트레 페라가모는 싱글 스웨터 재킷에 스웨터 팬츠를 매치한 근사한 스타일로 부드러운 남성성을 어필했다.

## Trend 6. 90s Prep

에슬레틱 열풍이 계속되는 가운데, 1990년대를 대표하는 Y2K 스타일과 조우한 프레피 스타일이 이를 주도한다. 디자이너들은 대학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일으키고 싶은 걸까? 루이 비통과 겐조, 아미 등 남성 컬렉션에서는 일명 '과잠'으로 불리는 야구 점퍼가 호명하고 자유로운 분위기를 불러일으키면서 캠퍼스 분위기를 내는 각양각색의 엠블럼으로 하우스의 상징적인 면모를 강조했다. 여성 컬렉션에서는 미우미우가 대표적으로 전 시즌보다 더 작고 짧은 미니스커트, 니 삭스와 매치한 발레리나 슈즈 등으로 아이비리그의 테니스 코트에서 영감을 얻은 스포티하고 재기 발랄한 에너지를 선사했다. 하루하루 설레던 그 시절에 대한 향수를 불러오는 룩을 통해 재미를 느껴보는 건 어떨지.

## Trend 7. It's Sequin Time

화려함에 대한 갈망, 그리고 디너파티에 대한 욕망 등은 시퀀과 비즈, 시스루와 새틴 등 온갖 반짝이고 빛나는 소재의 향연으로 나타났다. 특히 여성복에 주로 사용하던 이 소재들은 현재와 미래, 디지털과 실제 세상, 여성과 남성의 경계가 모호해지는 지점을 아우른 니콜라 제스키에르의 루이 비통 쇼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었다. 반짝이는 시퀀 장식으로 레터링을 수놓은 시스루 드레스의 찰랑거리는 소리와 눈부신 빛으로 풍성하게 채운 낙관적인 메시지를 담아낸 알렉산더 맥퀸, 댄서들의 에너지적인 움직임과 어우러진 메탈릭 글램 룩을 선보인 이자벨 마랑까지, 각각의 컬렉션과 쇼 피스들이 가리키는 방향은 레드로, 퓨처리즘 혹은 그 중간 어디쯤에 있던 분명한 건 침체된 일상에 활기와 에너지를 불어넣는 패션의 낙관적인 역할을 상기시켰다는 점이다.

## Trend 8. Pink Pop Pop

발렌티노 크리에이티브 디렉터 피에파올로 피올리가 물고 온 핑크 물결은 런웨이를 한층 더 활력 있게 만들었다. 컬러 연구소 팬텀과 공동으로 작업한 그는 쇼 노트를 통해 "핑크는 무의식의 표현이자 리얼리즘으로부터 해방된 것을 상징한다. 핑크는 개성을 높이고 가치와 감정을 담아내는 실현적이면서도 인간적인 제스처다"라며, 핑크에 대한 예찬을 이어갔다. 릭 오웬스의 캔디 컬러 오버코트부터 아미와 베트멍 쇼에서 볼 수 있었던 핑크색 마젠타 코트, 그리고 폴 스미스의 바렌 듯한 버건디 퍼퍼 재킷까지, 어느 팔레트에도 잘 어울리는 톤의 경쾌하고 활기찬 핑크 컬러가 대세를 이뤘다.

## Trend 9. All Black Chic

블랙에 대한 패션계의 추종이 계속되는 가운데, 이번 시즌은 머리카락부터 발끝까지 검은 외관을 탐닉하는 듯 보인다. 복면 스타일의 머메이드 실루엣 드레스를 입고 손끝을 가린 채 런웨이를 걷는 알리아의 신비로운 여인을 비롯해 릭 오웬스와 지방사는 블랙의 드레이피하고 미스터리한 미학을 선택했고, 질 샌더와 베르사체, 그리고 루이 비통에서는 군더더기 없이 완벽한 테일러링을 이루는 긴장감 넘치는 룩이 주를 이뤘다. 화려한 소재나 디테일은 없었지만 검은 팔레트 위에 곱겹겹이 레이어드한 소재와 아이템은 그 어느 때보다 밝게 빛났다.

## Trend 10. Take Flight

고민 없이 입을 수 있는 편안한 아이덴티티 동사에 보머 재킷이 지난 거침없는 반전 매력은 비행기가 이륙할 때의 짜릿함마저 느끼게 한다. 셀린느 여성 쇼와 토즈 남성 컬렉션에서 엿볼 수 있듯 고급 스웨이드와 시어링 소재의 부드러운 균형감을 바탕으로 기분 좋은 착용감을 선사하는 아이템은 캐멀에서 다크 브라운, 그리고 블랙까지 섬세하게 조절된 고급스러운 톤을 통해 TPO(시간, 장소, 상황) 구분 없이 활용하기 쉽게 전개된다. 연출법 역시 레깅스 차림에 걸쳐 입고 쿨한 에슬레틱 스타일로 나서거나 이브닝 파티를 위한 화려한 시퀀 드레스와 페어링하는 등 무한 변주를 이뤘다. 에디터 **이주이**



White Tank. BOTTEGA VENETA

Robe Life Still Goes On. DIOR MEN

The Power Shoulder. PRADA



Pink Pop Pop. VALENTINO

All Black Chic. ALAÏA

Take Flight. TOD'S

It's Sequin Time. FENDI

탄생 10주년 맞이한 루이비통 '오브제노마드' 컬렉션

# Nomadic Fantasy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철저한 장인 정신을 바탕으로 한 섬세한 수공예 노하우와 만나 창조해내는 한정판 가구 컬렉션. 루이비통 오브제노마드(Objets Nomades) 컬렉션은 '노마드'라는 단어가 시사하듯 '여행 예술을 철학하고 가치로 삼아온 브랜드의 정신과 일맥상통한다. 우리는 꽤 오래도록 자유로이 여행을 즐기지 못했지만, 디자이너들의 상상력은 그러한 제약을 기쁘히 넘어서면서 '영혼과 정신의 자유로움'을 담은 작품으로 승화된다. 그리고 반갑게도 물리적으로도 다시금 '회동'할 수 있었던 지난 6월 초, 밀라노 가구박람회 현장에서 마주한 오브제노마드 프로젝트의 참여 디자이너들은 놀라운 회복 탄력성과 창조력을 보여줬다. 어느새 탄생 10주년을 맞이한 오브제노마드 컬렉션의 이번 전시 무대는 1930년대 말로 거슬러 올라가는 유서 깊은 건축물. 절대적인 상징성을 지닌 밀라노라는 디자인 도시를 다시금 즐길 수 있었던 영광 넘치는 현장을 소개한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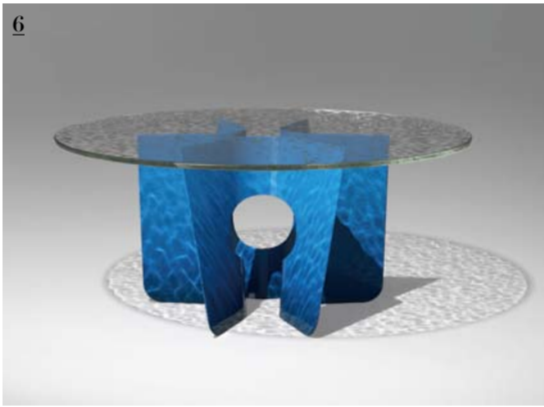
(Fuori Salone)라는 존재의 역할이 아주 컸다. 패션 위크가 아님에도 유수의 명품 패션 하우스들이 저마다의 카리스마를 뽐내는 다채로운 방식으로 참여하며, 디자인 산업과 직접적인 연관성이 없는 기업이나 브랜드도 각자의 개성을 내세운 행사를 앞다퉈 선보인다. 경쟁력 있는 글로벌 브랜드라면 '살로네리는 무대를 피해 갈 수 없다'는 인식이 있을 정도로 마케팅의 격전지이지만, 유·무형의 라이프스타일 콘텐츠를 즐기는 관람객들에게는 영감 어린 추억과 경험을 담뿍 선사하는 장치이기도 하다.

## 'Back in Milan', 다시 찾아온 글로벌 디자인 축제

이런 배경에서 팬데믹 탓에 이 광채같은 봄의 계절이 몇 년 동안이나 나래를 펴지 못한 현실은 밀라노라는 도시에 제대로 좌절을 안겨줬다. 더구나 '소통'과 '교류'가 중시되는 디자인업의 특성상 살로네처럼 트렌드와 수요를 좌우하는 커다란 플랫폼의 공백은 더 크게 다가왔을지도 모르겠다. 그러다가 드디어 올해 밀라노(8) 팜파르가 다시 올려 피졌다. 밀라노 가구박람회 60회를 맞이해 더욱 뜻깊었던 올해의 디자인 주간은 이례적으로 초여름인 6월 초에 막을 올렸는데, 오랜만에 다수가 어우러진 축제의 현장은 마치 '고향'에 극적으로 돌아온 듯한, 감개무량한 분위기에 휩싸였다.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들과 손잡고 장인 정신과 수공예 노하우를 바탕으로 한 컬렉션을 빛내주는 루이비통 오브제노마드 프로젝트에도 올해는 남다른 해다. 지난 2012년 이래 꾸려온 이 글로벌 프로젝트가 10주년을 맞이한 데다가 무려 3년 만에 밀라노에서 협업 디자이너들이 '재회를' 했기 때문이다. 오브제노마드 컬렉션은 오늘날 문화 예술계를 이끌어나가는 산업 디자이너들이 루이비통의 브랜드 핵심 가치인 '여행 예술(Art of Travel)'에서 영감을 받아 저마다의 현대적인 감각으로 재해석한 한정판 아트 퍼니처와 소품으로 구성되는데, 10년에 걸쳐 창조적 확장을 거듭하면서 현재 14

밀라노는 단지 이탈리아의 수도가 아니라 현대 디자인의 메카이자 수많은 디자이너에게 일종의 정신적 고향이기도 하다. 특히 해마다 춘삼월, 밀라노 가구박람회를 일컫는 '살로네 델 모빌레(Salone del Mobile, Milano)'가 열리는 기간에 유렵안은 물론 전 세계에서 문화 예술계 종사자와 애호가 가 몰려드는 커다란 축제가 도시 곳곳에서 펼쳐지는데, 이 때를 틈탄 주간을 밀라노 디자인 위크라고 부른다. 이 주간이 호텔 숙박료를 4~5배까지 끌어올릴 만큼 인기 높은 '글로벌 축제'로 자리매김한 데는 밀라노 외곽에 자리한 로 피에라(Rho Fiera) 전시장에서 열리는 가구 브랜드 바이어들의 상거래를 위한 박람회 자체의 권위도 있지만, 시내 여가지에서 전개되는 장외 전시를 뜻하는 '푸오리 살로네

팀의 다국적 크리에이터들이 참여하고 있다. 이 중에는 '이름' 자체가 곧 '브랜드'인 명성 높은 디자이너도 포함되어 있다. 독보적인 예술 감성으로 잘 알려진, 브라질이 낳은 거장 캄파나 형제(Campana Brothers), 스페인 출신으로 밀라노 디자인계의 '여왕'으로 불리는 파트리시아 우르키올라(Patricia Urquiola), 섬세하면서도 화려한 매혹의 디자인 언어를 지닌 네덜란드의 디자이너 마르셀 반더스(Marcel Wanders), 예술과 디자인의 경계를 넘나드는 일본 디자이너 요시오카 도쿠진(Tokujiin Yoshioka) 등의 이른바 슈퍼 디자이너들이다. 또 실험적이면서 심미성도 빼어난 디자인으로 유명한 스위스 3인조 그룹 아틀리에 오이(Atelier OI), 재기 발랄하고 사랑스러운 디자인 감성의 2인조인 로 에지스(Raw Edges), 황홀한 색채 감각을 지닌 프랑스의 인테리어 디자이너 인디아 마다비(India Mahdavi) 등의 스타 디자이너들도 있다. 이들은 루이비통 오브제노마드 팀과 각자의 작업을 해나가지만 디자인 마이애미와 살로네 같은 글로벌 행사가 열리는 도시에서



자주 마주치면서 영감을 주고받기에 느슨한 유대를 지닌 '디자인 패밀리' 같은 그룹이 되어가고 있다. 팬데믹의 장기화로 수년간 발이 묶이는 바람에 간단한 회동인지라 올해는 "가족을 다시 만난 것 같다"면서 유난히 반가워하는 기색이 역력했다.

## '노미드의 꿈'을 향한 디자이너들의 창조적 여정

프랑스 사회학자 모리스 알박스는 도시 자체는 그 도시에 살아가는 이들의 '집단 기억'이라는 견해를 펼친 바 있다. 밀라노는 많은 디자이너들에게도 '집단 기억'의 도시이자 공간이며, 이 도시 곳곳의 장소를 역시 뚜렷하기도 하고 희미해진 경우도 있지만, 소중한 기억의 대상들이지 않을까 싶다. 이번 밀라노 행사에서 오브제노마드 컬렉션의 무대는 80년도 더 된 낡은 차고 건물을 새 단장한 가라지 트라베르시(Garage Traversi)가 낙점됐다. 건축가 주세페 데 민(Giuseppe De Min)이 1939년 실험적인 차고로 설계한 건물로, 변화한 몬테 나폴리오네 거리 근처에 있다. 장소성이 남다른 건축물을 재발견하는 데 뛰어난 루이비통다운 선택이다. 밀라노를 사랑하는 이들의 '집단 기억' 속에서 새롭게 영감을 끄집어낼 만한 공간으로 재탄생한 건축물. 바로 그곳에서 2개 층에 걸쳐 전시된 오브제노마드 컬렉션의 '신작'을 들고 나온 세 팀의 주인공들을 직접 만나봤다. 먼저 런던을 주 무대로 활약하는 '듀오인 로 에지스. 야엘 메르(Yael Mer), 샤이 알칼라이(Shay Alkalay)' 커플이 이끄는 디자인 스튜디오의 이름이다. 이들은 오브제노마드 프로젝트의 초기부터 합류했는데, 꽃잎을 겹쳐 만든 듯한 디자인이 매

\*루이비통 오브제노마드(Louis Vuitton)



1 올해 탄생 10주년을 맞이한 루이비통 오브제노마드(Objets Nomades) 컬렉션이 지난 6월 초 2022 밀라노 가구박람회 기간 전시됐다. 건축가 주세페 데 민(Giuseppe De Min)이 1939년 실험적인 차고로 설계한 건물 가라지 트라베르시(Garage Traversi)를 새 단장해 전시 무대로 삼았다. 올해 서울 청담동의 송은에서도 밀라노 가구 박람회 시장과 맞물려 오브제노마드 컬렉션 전시가 개최된 바 있다. 2 오브제노마드 컬렉션의 밀라노 전시를 찾은 디자이너들의 단체 사진. 캄파나 형제 중 움베르토 캄파나, 아틀리에 오이, 미르셀 반더스, 프랭크 후 등이 포함돼 있다. 2012년 첫선을 보인 이래, 당대 최고의 디자이너들이 1백60년 넘게 이어온 루이비통 브랜드의 철학 '여행 예술(Art of Travel)'을 재해석해 탄생시킨 오브제노마드 컬렉션의 참여 디자이너는 현재 14팀이고 총 60점 이상의 디자인 오브제로 구성돼 있다. 3 2022 밀라노 가구박람회 기간 가라지 트라베르시에서 선보인 오브제노마드 컬렉션 전시 모습. 4 3인방이 이끄는 스위스 스튜디오 오이(OI)의 신작 '벨트 라운지 체어'. 5 아틀리에 오이의 '벨트 체어와 신작인 '벨트 바 스툴'. 6 런던 기반의 디자인 스튜디오 로 에지스의 실외용 '코스믹 테이블'. 7 브라질 출신의 거장 '듀오인 로 에지스'의 신작 '벨트 바 스툴'과 '코스믹 테이블'. 8 어느덧 매종의 장류 프로그램으로 거듭난 '노미드 건축(Nomadic Architecture)' 전시도 박람회 기간 중 함께 공개됐다. 올해는 스튜디오 로셰(Studio Roche)의 노비 하우스(Nova House)가 신비롭다 광장(Piazza San Babila)에서 관람객을 맞이했다.

력적인, 않는 부분이 접하는 의자와 접이식 조명 등으로 이어져온 '콘서트나 컬렉션(Concertina Collection)'과 가죽과 천, 색상의 여러 조합이 저마다 다른 개성을 자아내는 양중맞은 '돌스(Dolls)' 체어 시리즈 등으로 존재감을 드러내왔다. 올해 살로네 무대에서는 탄소섬유로 완성한 뼈대와 등글과 비스듬한 유리 상판의 조화가 인상적인 '실외용 코스믹 테이블(Cosmic Table)'을 선보였다. 실제·실외용이 따로 있는데, 전자는 밝은 색상의 루이비통 가죽으로 겹겹이 감싼 반면 신작 실외용은 에나멜과 메탈 소재로 마감 처리를 했다. 이처럼 매력적인 포트폴리오를 구축해나가고 있지만 사실 이들은 "처음 오브제노마드 프로젝트에 임했을 때 아이디어를 실제로 구현하는 데 3~4년이 걸렸다"고 회고했다. '열린 논의(open debate)'와 장인들의 노하우, 그리고 루이비통 오브제노마드 팀의 간접적이지만 조연 덕분에 결국은 해결책을 발견했다고. "루이비통 팀은 마치 갤러리 같았어요. 자신들이 원하는 바를 말하거나, 특별한 가이드 라인을 제시하지 않았죠. 그보다는 아티스트의 비전과 영감을 바탕으로 하는 협업이에요."

따로 또 같이! '공동 플랫폼에서 비롯된 에너지와 동행'의식 브라질 태생의 캄파나 형제는 중남미에서 배출한 최고의 '형제' 디자이너다. 형인 움베르토 캄파나는 주로 해외를 누비면서 '내편인' 역할을 겸하고 있고, 동생인 페르난도 캄파나는 그들의 본격적인 상파울루에 주로 머물면서 '리서치'를 한다. 올해도 움베르토가 밀라노를 찾았는데, "팬데믹은 삶에 큰 충격을 줬다"면서 밀라노에의 귀환을 감격스러워했다. 한 달에 두 차례는 여행길에 오르던 그의 일상이 스튜디오를 8개월이나 더야야 하는 상황에 처하기도 했기 때문이다. 그런 와중에서 창조적 영감은 잃지 않았나 보다. 지난해 말 디자인 마이애미에서 동심을 일깨우는 알록달록한 색채의 미학이 돋보이는 '아구아카테(Aguacate)'와 머랭 과자 모양을 연상시키는 '메렝게(Merengue)'를 내놓은 데 이어 이번에도 신작을 선보였다. 구름 모양의 인기 작품인 모듈식 소파 '봄보카(Bomboca)'의 4인용 버전인 '봄보카 GM'이다. 단단한 가죽 커버 베이스에 패브릭을 씌운 탈착식 쿠션 11개로 구성되어 있다. 봄보카는 브라질에서 결혼식이나 아이들의 파티에서 즐겨 먹는 과자에서 따온 이름인데, 실제로 감



블랙 & 레드 & 화이트 컬러의  
자카드 맨슬 드레스, 블랙 컬러  
핑크 하네스 펌프스, 양손에 착용한  
실버 브러시 슬릿, 아이카프  
모두 가격미정 알레산드리 맥킨.

# SECRET GARDEN

클래식함과 우아함이 돋보이는 2022 F/W 키 룩 포트폴리오.  
photographed by lee sang hun

블랙 컬러의 특약드 소재 블라우스, 핑크 컬러의 실크 셔츠, 소재 재킷인 스카프, 메탈 소재 이어링, 메탈 & 카프 스킨 & 레진 소재 니크프리스 모두 가격미정 시벨.







브라운 컬러 니트 소재의 롱 슬리브 4웨이스트 4웨이스트 4웨이스트, 매리도트 드레스 4웨이스트 4웨이스트, 클라시 테니스 네크리스 1백20만원 모두 다이오브.

브라운 컬러 레더 소재의 코르셋 4웨이스트, 대님 팬츠 1백만원, 테라스트리 패브릭의 핏프스 1백만원, 메릴과 크리스탈 소재의 골드 아이어링 80만원 모두 다이오브.





모 소재의 레드 컬러 프릴 탑,  
캐주얼 컬러 개바단 팬츠 모두  
가격 미정 **상비토레 데라가모** 루비  
상들리에 이어링 4백95만원 다이오모.



그레이 컬러 싱글브레스트 블로스 제킷, 캐시미어 및 울 터틀넥 블, 플로스 및 매시 미디스키트, 블랙 라더 블로츠 모두 가격 미정 **프라다**.



블랙 컬러 바인딩 & 캐시미어 소재의 니트 톱 1,950,000원, 바인딩 & 라인스톤 소재의 바뮤디엔트 2,940,000원, 코트 & 라인스톤 소재의 부수 2,600,000원, 코트 & 라인스톤 소재의 바뮤디엔트 모두 1,800,000원, 시스루시크 스타일리스트 소장품.



엘미카 세브로 스웨터, 프리제 디테일이 돋보이는 사야나 리더 롱스커트, 부드러운 나뭇 가지의 펄프스, 쿼크 자르코코야 & 메달릭 실버 & 스틸링 실버 아이링 모두 가격 미정 보태가 베네타.

헤어 강민정  
메이크업 아이정  
모델 Tatiana, Emma Saffel  
스타일리스트 채환석

일렉신더 맥퀸 02-6905-3472  
샤넬 080-200-2700, chanel.com  
에르메스 02-542-6622  
펜디 02-514-0652  
살바토레 파라카모 02-3430-7854  
프라다 02-3218-5320  
토즈 02-3438-6008  
보태가 베네타 02-3438-7882  
다이오모 1811-4073



# Lyrical Dream

고유한 스토리와 자연에 대한 예찬, 서정적인 아름다움까지, 반클리프 아펠의 아이덴티티를 고스란히 녹인 메종이 한국, 서울에 오픈했다. 브랜드의 색을 잃지 않으면서도 한국 거리와 문화를 그들만의 방식으로 녹여낸 이 훌륭한 부티크에 담긴 스토리가 궁금해 수년간 반클리프 아펠(Van Cleef & Arpels)의 CEO이자 회장으로 자리를 지켜온 니콜라 보스(Nicolas Bos) 회장에게 질문을 던졌다.

**Style Chosun(이하 S)** 반클리프 아펠 서울 메종이 파리 방돔 광장과 뉴욕 5번가, 도쿄 긴자, 홍콩 랜드마크 프린스에 이어 다섯 번째로 서울에 오픈한다는 소식은 많은 이들의 기대를 모았습니다. 더디어 메종이 오픈했는데, 소감이 어떨까요? **Nicolas Bos(이하 N)** 반클리프 아펠의 서울 메종 오픈 첫 순간은 저희 브랜드 역사에서 진정한 이정표가 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중앙 만우 에이전시와 함께 처음부터 구성하고 계획한 특별한 프로젝트로, 저희에게는 더욱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S** 반클리프 아펠의 히스토리를 보면 중앙 만우와 오랜 시간 관계를 유지해왔습니다. 중앙 만우의 첫인상과 그들과 함께 작업하게 된 계기가 궁금합니다. **N** 중앙 만우 에이전시의 협업은 15년 전 처음 시작되었습니다. 저희가 찾던 서정성을 갖춘 감각과 비전이 파트너 선정의 이유였고, 함께 새로운 세계의 첫 경향을 시작했고, 그 기억을 토대로 지금까지도 긴밀한 관계를 맺으며 성장 중입니다. 그동안 많은 프로젝트를 거쳐서 중앙 만우 에이전시는 반클리프 아펠의 DNA를 깊이 이해했고, 이로써 모든 프로젝트마다 마지막의 세계로 향하는 매혹적인 여정과 고객을 따뜻하게 맞이하려는 메종 고유의 정신이 담긴 장소를 탄생시켰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작품과 지역 문화 모두를 찬란하게 드러내며 의미 깊은 대화를 이끌어내고, 이를 건축 라인을 통해 재해석하는 탁월한 방법을 발견해주었습니다. 서울 메종 역시 중앙 만우에 대한 저희의 폭넓고 깊은 신뢰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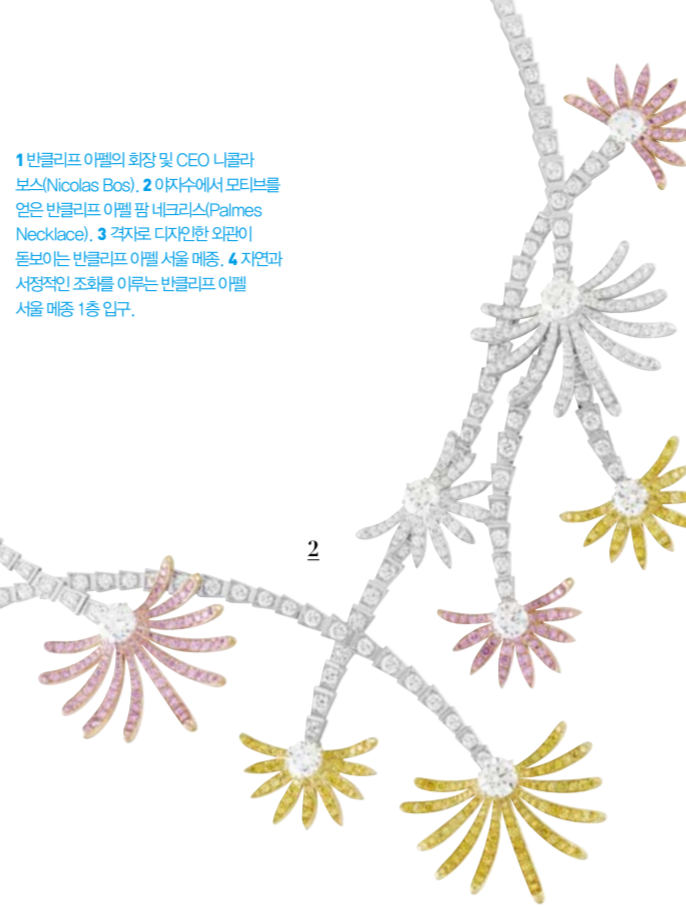
**S** 서울 메종이 4개 도시의 플래그십 부티크와 다른 특별한 점이 있나요? **N** 홍콩, 파리 또는 뉴욕의 부티크는 기존 공간을 재구성하는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서울 메종의 경우 부티크를 완전히 새롭게 탄생시켰다는 점에서 큰 차별점이 있습니다. 이 과정은 그동안 저희가 표현하고 싶었던 것들을 자유롭게 표출할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또 이곳을 기반으로 한국 문화에 뿌리를 내려 반클리프 아펠의 정체성을 오히려 조달하기 위해 필요한 세밀한 관심과 구체적인 조사부터 시작했다는 점이 다른 메종과의 가장 큰 차별점입니다.

**S** 한국 문화와 반클리프 아펠만의 브랜드 아이덴티티를 결합하는 과정에서 느낀 점이 있다면요? **N** 한국에 대해 조사하면서 반클리프 아펠의 스타일,

특히 형상적인 접근과 자연을 표현하는 방식에서 한국인의 취향, 미학적 전통과 상당히 비슷한 요소가 다수 존재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 부티크가 메종은 물론 한국에도 매우 소중한면서 중요한 주제인 자연을 만나는 물음의 순간을 경험하게 하는 진정한 초대 공간이 되길 바랍니다. 또 프랑스가 지켜온 유산과 한국이 지닌 풍부한 유산을 단단히 이어주는 장이 되길 바랍니다. 최종적으로 완성된 결과물이 서울 풍경과 조화를 이루는 방식을 보고 싶다면 정말 자랑스럽습니다.

**S** 반클리프 아펠 주얼리와 워치의 스토리텔링 능력을 보면 놀라곤 합니다. 이번 서울 메종 역시 이를 실감하게 합니다. 5층 규모 부티크의 각 층에 전시, 콘퍼런스 등 다양한 콘셉트를 적용하면서도 하나로 통합하는 유적이 느낌이 듭니다. 이를 위해 가장 중점적으로 적용한 가치나 디자인적 요소는 무엇인가요? **N** 서울 메종은 건축학적으로 중요한 작품입니다. 존재 자체로 한국에서 만날 수 있는 자연, 문화, 전통과 반클리프 아펠이 지켜온 철학에 경의를 표합니다. 층마다 메종에 소중한 영감을 주는 안전과 생명력을 풍어내는 식물에 대한 애정을 담아내려는 취지를 반영했습니다. 또 다채로운 예술 분야가 어우러지는 문화적 만남과 창의성이 돋보이는 합업을 장려하려 노력했습니다. 그리고 이 공간에 고객을 맞이하는 곳이라는 콘셉트를 적용해 함께 나누는 스톱의 장 역할을 부여하고자 했습니다. 이처럼 다양한 구역 간의 연결을 구현한 것은 서울 메종이 소통의 가치와 아름다움, 탁월함까지, 반클리프 아펠의 다양한 가치를 나누는 문화적 공간이 되었으면 했기 때문입니다.

**S** 개인적으로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은 몇 층 혹은 어느 색채인가요? **N** 메종의 정체성은 풍부하고 다양한 환경에서 얻은 영감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가장 마음에 드는 공간 하나만 고르기가 매우 어렵군요. 서울 메종은 특히 연결된 각각의 공간에 복합적인 차원의 세계를 품도록 고안되었습니다. 부티크를 구성하는 모든 공간은 서로 이어지며 발걸음 옮겨다주는 공간으로 이동할 때조차 그 전 공간과 이질감 없이 어우러집니다. 그럼에도 굳이 한 공간을 꼽자면 3층을 그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3층이 가장 고유함을 자녔다고 느껴 서울 메종 부티크를 향한 저희의 취지를 완벽히 구현했다고 생각합니다.



**S** 앞으로 서울 메종에서 벌어질 다양한 재미있는 일과 이벤트가 기대됩니다. 계획하고 있는 것들이 있나요? **N** 앞서 말한 3층 예술의 정원(Jardin des Arts)은 문화와 유산을 선보이는 전시 공간입니다. 한국 공예 작품은 물론 역사적인 가치와 의미가 깃든 주얼리 작품 등 다양한 예술 작품을 아우르며 선보일 예정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메종이 가장 소중히 여는 가치 중 하나인 전승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레플 주얼리 아트 스쿨 L'ÉCOLE, The School of Jewelry Arts)이 주관하는 건담학과 콘퍼런스도 열 예정입니다.

**S** 앞으로 반클리프 아펠이 한국과 서울에서 또는 전 세계적으로 어떤 의미이자 공간이 되기를 원하는지요? **N** 프랑스 하이 주얼리 메종인 반클리프 아펠은 메종의 전통을 계승하는 노력을 지니고 있으며 서정성이 가득한 매혹적인 스토리를 전하는 고유의 방식을 고수하고 있습니다. 한국뿐 아니라 전 세계 예술가를 장려하는 플랫폼으로서 제 역할을 다 하는 공간이자 전 세계에 존재하는 다채로운 문화에 가치를 두고 이를 소중히 여기며 주얼리 세계를 만드는 순간을 창조하고 각 문화의 가치를 기념하는 공간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에디터 생정민

© Youngjoon Choi

1 반클리프 아펠의 회장 및 CEO 니콜라 보스(Nicolas Bos), 2 아자수에서 모티브를 얻은 반클리프 아펠 팜 네크리스(Palmes Necklace), 3 각자로 디자인된 요란이 돋보이는 반클리프 아펠 서울 메종, 4 자연과 서정적인 조화를 이루는 반클리프 아펠 서울 메종 1층 입구.

# Keep turning on joy

“언제나 완벽, 그 이상을 추구하라”는 창립자 조르주-에두아르 피아제(Georges-Édouard Piaget)의 철학을 계승하며 상상을 뛰어넘는 작품을 선보여온 피아제가 메종의 미학과 정신을 응축한 제품을 출시한다. 골드의 찬란한 아름다움을 만끽할 수 있는 ‘피아제 포제션 팰리스 데코 컬렉션’.

## 탁월한 금세공 기술의 비밀

1874년, 스위스 라 코트페(La Côte-aux-Fées)의 작은 마을에서 시계 무브먼트 매뉴팩처로 역사를 시작한 피아제는 고유의 스타일과 독창성으로 이름을 널리 알리게 되었다. 보석 세공과 워치메이킹 기술력을 결합한 작품은 대담한 디자인과 우아한 매력, 탁월한 기능으로 빠르게 주목받았다. 특히 주로 자연에서 영감을 얻은 피아제는 유일무이한 창의성을 표현할 소재로 골드를 즐겨 사용했다. 가공하지 않은 순수한 상태에서도 눈부시게 아름다운 골드가 선사하는 영감을 통해 피아제는 금세공 장인의 탁월한 손길이 닿은 시계 케이스와 스트랩을 만들었고, 나아가 하이 주얼리 작품을 선보이기에 이른다. 2001년, 피아제는 더 높은 수준의 독창성을 추구하며 제네바 외곽의 플랑-레-와트(Plan-les-Ouates)에 두 번째 매뉴팩처를 설립했다. 탁월함의 산실(Ateliers de l'Extraordinaire)인 이곳에는 정교한 금세공을 비롯한 주얼리 메이킹을 담당하는 아틀리에가 자리해, 진기한 젤스톤, 골드 등 다양한 원재료가 전문가의 손길을 거쳐 화려한 주얼리와 시계로 거듭난다. 아틀리에를 둘러싼 고요하고 한적한 환경은 독창적인 동시에 섬세한 디테일을 갖춘 작품을 구성하고 제작하기에 완벽하다. 여기서 피아제의 숙련된 장인은 골드에 자연의 무늬를 담은 양각을 구현하는가 하면, 때로는 이를 실크나 메시 소재처럼 부드러운 형태로 빚어내기도 한다. 메종의 탁월한 금세공 기술력을 증명하는 시그니처 디테일인 팰리스 데코(Palace Décor)만을 담당하는 장인도 존재한다. 1961년 처음 선보인 이 특별한 인그레이빙 기술(또는 장식)은 전통적으로 시계에 사용하던 기묘한 주얼리 영역에 접목한 것으로, 마치 과거 유럽 궁전 성벽의 질감을 재현한 것처럼 보인다 하여 명명되었다. 장인은 모서리가 날카로운 조각용 끌(burin)을 사용해 처음부터 끝까지 수작업으로 장식을 완성한다. 단단한 골드에 매우 정교한 무늬를 일일이 새겨 넣는 고난도 작업인 만큼 상당한 수준의 노하우와 손 기술, 집중력을 요한다. 팰리스 데코 인그레이빙한 주얼리는 부드러운 텍스처를 얻을 뿐 아니라 빛을 포착하고 반사하는 성질이 극대화되어 한층 더 화사하게 빛난다. 손끝에서 완성한 스트로크와 터치 하나하나가 고유한 모습을 지니기에 세상에 단 하나뿐인 주얼리가 탄생하게 된다.

## 모방할 수 없는 아름다움, 피아제 포제션 팰리스 데코

피아제를 대표하는 포제션 컬렉션은 링 중앙에 포개진 또 다른 밴드가 회전하는 특유의 경쾌한 디자인이 특징이다. 착용자의 움직임에 따라 끝없이 계속되는 터닝은 그 자체만으로 장식적인 효과를 발휘할 뿐 아니라 행운을 불러오는 부작과 같은 의미를 지녔다. 펜던트, 네크리스, 팽글, 브레이슬릿 등으로 라인업을 확장하며 다채로운 재해석을 보여온 포제션 컬렉션이 올해 더욱 새롭고 획기적인 모습으로 등장했다. 메종의 눈부신 금세공 기술을 대변하는 팰리스 데코 장식을 집묵한



것. 다양한 사이즈로 선보이는 화이트 골드 또는 핑크 골드 소재의 링, 핑크 골드 소재의 트리플 이어링은 모두 1개나 2개의 회전 밴드를 갖추고, 일부 또는 전체에 팰리스 데코 인그레이빙을 더했다. 또 다이아몬드 주변에 2개의 골드 반구를 배치해 스톤의 광채를 극대화하는 피아제 고유의 포제션 세팅(하프 문 세팅)을 적용해 더욱 특별하다. 심플한 것부터 화려하고 볼드한 모델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디자인으로 출시해 선택의 폭이 넓은 뿐 아니라, 여러 제품을 레이어링하거나 믹스 매치하기에 용이해 개성 있는 스타일을 연출할 수 있다. 지금, 일상에 마법 같은 순간들을 가져다줄 피아제 포제션 팰리스 데코 컬렉션을 만나보자. 문의 1688-1874 고객센터 **이해미**

1 다채로운 디자인의 링과 이어링을 선보이는 피아제 포제션 팰리스 데코 컬렉션, 2 피아제의 뛰어난 금세공 기술을 보여주는 팰리스 데코 핸드 인그레이빙, 3 화이트 골드 소재의 피아제 포제션 팰리스 데코 링, 4 피아제 플랑-레-와트 매뉴팩처.



# Lady Days

사랑스러운 미니 레이디 토트백.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토리옹 브러시 소재로 제작한 클래식 레전 자느 백, 오렌지 컬러를 입혀 상큼한 매력을 더했다. 3백 41만원대 **모아나**, 문의 02-596-9620. 상징적인 모노그램 패턴을 적용한 그린 자카드 벨벳 소재 마이크로 메타스 백, 달 착 가능한 체인 스트랩이 있어 토트백 혹은 크로스 바디 백으로 다채롭게 연출할 수 있다. 2백43만원 **루이 비통**, 문의 02-3432-1854. 각진 스트러처 실루엣과 로고 바늘, 4G 체인 장식이 하나의 아이덴티티를 이루는 신뜻한 블루 컬러의 스몰 백 2백13만원 **자침시**, 문의 02-3479-6137. 볼드한 V 로고 버클로 포인트를 준 로코 백 스몰 2백76만원 **발렌티노 가라 바니**, 문의 02-2015-4655. 레드 컬러가 우아하면서도 강한 존재감을 내뿜는 카프 스킨 소재의 T 타겟리스 백 2백30만원 **원대 토즈**, 문의 02-3438-6008. 클래식한 매리의 블랙 페이퍼트 레더 스몰 코즈메틱 케이스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상그러운 레몬 컬러가 기분 좋은 에너지를 전하는 프라다 라에다신 1985 브러시드 가죽 미니 핸드백 3백60만원 **프라다**, 문의 02-3218-5320 **에디터 아주이**

이슈리뷰 228면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옷과 가방에 걸쳐 연출할 수 있도록 제작한 시그처처 바게트 백 모양의 참 가격 미정 **펜디**, 문의 02-514-0652 스몰 백에 곡선으로 우아하게 떨어지는 긴 가죽 핸들의 실루엣이 돋보이는 다채로운 자카드 모티브 트리아앵글 프린트의 스몰 자느 페르릭 백 3백50만원대 **프라다**, 문의 02-3218-5320. 호보 백 스타일의 마이크로 나노 시리즈 백으로 펜디의 로고가 포인트가 되는 펜디그리피 나노 백 가격 미정 **펜디**, 문의 02-514-0652. 비드한 오렌지 컬러가 돋보이는 소프트 시아링 소재의 웨디 펄프스 가격 미정 **보네타가 베네타**, 문의 02-3438-7682. 투박한 스타일이 멋스러운 아세테이트 프레임에 나일론 렌즈, 중앙의 트리아앵글 메달 인스트가 특징인 쉐드 선글라스 가격 미정 **생로랑 by 인토니 바키엘로**, 문의 02-6105-2228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에코 퍼로 듀플린 디자인이 드러난 포인트를 더하는 백 1백73만원 **올레겐가비나**, 문의 02-3442-6888. 옐로와 퍼플의 컬러 플레이가 재미를 주는 패브릭 소재의 비브 쇼크 오간자 주얼 미니 백 가격 미정 **로저 비비에**, 문의 02-6906-3370. 아연 합금에서 가장 돋보였던 발렌티노 핑크 컬러에 시그처 스타일로 에지를 더한 쉐르드 펄프스 가격 미정 **발렌티노 가라바니**, 문의 02-2015-4653. 백 모양의 메달과 레진, 펄 스킨으로 이뤄진 비드한 라벤더 컬러의 포인트 네크리스 가격 미정 **샤넬**, 080-805-9628, chanel.com



# New for You

작은 것으로도 여자들의 욕망을 가득 채워줄 패션 액세서리.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브레이싱된 블루 컬러의 캐주얼한 스킨 소재로 이뤄진 디올의 시그처처 레이디 디 조이 백 가격 미정 **디올**, 문의 02-3480-0104. 리프트 블루 컬러의 사치니 솔리드 아세테이트 소재의 캣 아이 프레임 선글라스 39만원 **일렉산더 맥퀸**, 문의 02-6905-3472. 사이트에 대한 사설 로고가 매력적이며, 화이트 트윈드 소재에 코와 굵은 카프 스킨으로 마무리한 하이 부츠 가격 미정 **샤넬**, 문의 080-805-9628, chanel.com 오버 사이즈 크리стал 장식이 목에 포인트를 주는 나파 가죽 소재 초크 1백54만원 **미우미우**, 문의 02-3218-5331

(왼쪽부터 시계 방향으로) 선명한 오렌지 컬러와 블랙의 조화가 멋진 카프 레더 소재의 미니 호보 백 3백60만원 **구찌**, 문의 02-3452-1521 부드러운 양자족으로 발을 편안하게 하는 스카이 블루 컬러의 비바 펄프스 가격 미정 **살바토레 페라기오**, 문의 02-3430-7854. 까메 퀴릴 오버스타치 장식에 아이크-한 YSL 시그처로 마무리한 LE 57 솔더백 가격 미정 **생로랑 by 인토니 바키엘로**, 문의 02-6105-2228. 트리오매 디자인의 캔버스 소재로 이뤄진 시그처 트리오매 스몰 플립 지갑 가격 미정 **살바토레 페라기오**, 문의 02-549-6631. 재미있는 일라스트를 프린트한 에-펠 소재의 벨글 80만원대 **에르메스**, 문의 02-542-6622 **에디터 장영민**



# The Secret of Ultimate Beauty

로즈 드 그랑빌의 강한 생명력을 담은 새로운 다올 프레스티지 라 크렘 인텐시브 리페어링 크림. 피부의 감각과 생명력을 일깨우는 놀라운 경험을 선사한다.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1 다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 - 웰 드 로즈 어드밴스드 세럼과 새로운 다올 프레스티지 라 크렘 인텐시브 리페어링 크림, 2 다올 스킨케어만을 위해 탄생한 장미 로즈 드 그랑빌, 3 감각적인 향과 텍스처로 피부에 즉각적으로 궁극의 편안함을 선사한다, 4 리필에 최적화된 고급스러운 보틀과 친환경 소재의 패키지에 담아 선보인다.

**로즈 드 그랑빌의 생명력이 완성하는 궁극의 스킨케어**  
스트레스와 나쁜 생활 습관, 자외선, 오염 물질을 포함한 외부 환경 등 다양한 요인에 의해 매일 진행되는 피부 노화. 연령, 성별에 관계없이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이 불청객을 완벽하게 차단할 수는 없다. 하지만 뛰어난 성분과 기술력을 응축한 스킨케어 제품의 도움을 받으면 시간의 흔적을 개선할 수 있다. 놀라운 스킨케어 경험을 위해 탄생한 크리스찬 다올 뷰티 최초의 에이지 디파이닝 인텐시브 리페어링 크림, 새로운 다올 프레스티지 라 크렘 인텐시브 리페어링 크림은 다올 플로럴 사이언스의 결정체인 로즈 드 그랑빌의 유효 성분을 담아 피부에 새겨진 흔적을 개선하고, 피부 본연의 힘을 더욱 강화해준다. 오직 다올 스킨케어만을 위해 일곱 번의 개량을 거쳐 탄생한 로즈 드 그랑빌은 무려 4만여 종의 장미 가운데 특별히 엄선한 꽃으로, 강한 생명력과 에너지가 가득하다. 다음은 로즈 드 그랑빌의 줄기부터 꽃잎에 이르기까지, 진귀한 영양 성분을 추출하는 데 그치지 않고 한 단계 더 나아가 새로운 에코-분리 추출법을 통해 얻은 탄력 부스터, 로사 펩타이드를 담아냈다. 생물학에 대한 다올의 전문성, 노하우를 응용한 플로럴 사이언스로 탄생한 로사 펩타이드는 다른 용매 없이 식물에 자연적으로 존재하는 물만 이용해 88가지의 순수 활성 분자를 추출한 뒤, 장미 줄기에 흐르는 로즈 바이탈 수액 및 두 가지 펩타이드 성분을 결합한 것이다. 피부 탄력 부스터인 로사 펩타이드를 함유한 새로운 다올 프레스티지 라 크렘 인텐시브 리페어링 크림은 피부 장벽을 강화하고 피부 표면과 속까지 케어하는 3 단계 피부 개선 효과를 발휘한다. 따라서 피부는 고유의 활력을 되찾아 탄탄해지고 피부결은 매끄러워지며 장미 꽃잎처럼 화사하게 빛나는 피부 톤을 얻을 수 있다. 피부를 즉각적으로 부드럽고 편안하게 감싸는 감각적인 벨벳 텍스처와 은은한 향기 또한 놓칠 수 없는 부분. 브랜드의 아이코닉 로

즈 엠플 세럼인 다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웰 드 로즈 어드밴스드 세럼을 사용한 뒤 새로운 다올 프레스티지 라 크렘 인텐시브 리페어링 크림으로 마무리하면 궁극의 에이지-디파이닝 스킨케어 리추얼을 완성할 수 있다.

## 야생에서 피어난 아름다움, 로즈 드 그랑빌

장미를 향한 크리스찬 다올의 열정은 그가 어린 시절을 보낸 해안 도시 그랑빌의 레 랭브 저택과 노르망디 절벽에서 시작되었다. 거친 자연이 만들어낸 그랑빌의 절벽 암석 지대는 아주 오래전부터 자연의 기적이라 여겨지던 아름다운 다년생 야생 장미를 볼 수 있는 곳이었다. 이처럼 강한 바닷바람이 부는 척박한 환경을 이겨내는 꽃에서부터 로즈 드 그랑빌에 대한 연구와 개발이 시작되었다. 다올 사이언스 팀은 로즈 드 그랑빌이 지닌 탁월한 생명력의 비밀을 풀고, 다올 프레스티지 라인을 통해 시간을 초월한 아름다움을 보여주고자 하우스 최초의 장미 목목원인 다올 로즈 가든을 조성했다. 자연 그대로의 환경을 유지하고 있는 6헥타르 규모의 녹색 초원은 오직 로즈 드 그랑빌을 재배하기 위한 20개의 부지로 구성되어 있다. 이곳은 단순한 정원이 아니라 장미를 향한 하우스의 열정과 첨단 기술, 뷰티의 지속 가능성이 한데 어우러진 특별한 공간이다. 식물과 환경을 존중하는 재배법에 따라 귀하게 얻은 로즈 드 그랑빌을 통해 다올 프레스티지라는 대서사시의 첫 장이 시작된다.

## 책임 있는 럭셔리를 향한 약속

새로운 다올 프레스티지 라 크렘 인텐시브 리페어링 크림은 하우스의 유구한 유산을 담은 특별한 패키지를 적용했다. 우아한 골드 커버 위로 별을 닮은 다올의 시그니처, 로즈 드 방 패턴을 새겨 넣은 것. 이는 거친 바람이 몰아치는 해안가에서 자란 로즈 드 그랑빌의 시초인 야생 장미를 상징

하며, 크리스찬 다올이 어린 시절을 보낸 그랑빌의 레 랭브 저택 모자이크 타일을 연상시키기도 한다. 마지막으로 과거 선원들을 인도한 항해 나침반이자, 오늘날 여성들에게 영원한 아름다움의 길을 제시하는 나침반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크리스찬 다올 뷰티가 지향하는 지속 가능한 뷰티에 대한 가치와 노력도 담았다. 새롭게 설계한 보틀에 리필 시스템을 적용해 제품을 모두 사용한 뒤 따로 리필만 구입 및 교체해 재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줄이고, 미래를 위한 브랜드의 책임과 역할을 다하고자 한 모습이다. 또 제품 개발 과정에서 포장지 재질에 관한 연구도 꾸준히 이어왔는데, 새로운 다올 프레스티지 라 크렘 인텐시브 리페어링 크림은 핫 스탬핑 골드 메탈 마킹에서 블랙 유기농 잉크 기반 인쇄로 바꾸어 보틀의 재활용성을 높였다. 아우터 박스 역시 100% 재활용 가능한 카드 보드지와 FSC™ 종이로 제작했고, 페이퍼 리플릿 또한 QR코드로 대체하는 등 환경보호를 위해 아주 섬세한 부분까지 심혈을 기울였다. 문의 080-342-9500 **에디터 정민호**



# Power of Skin

탄력과 생기를 잃은 지친 피부에 하이엔드 테크놀로지와 고귀한 성분으로 강력한 힘을 부여해줄 영양 세럼.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왼쪽 위부터 시계 방향으로) **샤넬 수블리마지 레장스 플다멘탈 아이** 얼굴 중 가장 생애하고 잃은 부위인 눈가를 위한 세럼으로 사철의 최상위 프리미엄 스킨 라인인 핵심 성분인 바닐라 플레놀리 이 성분과 솔라디고 추출물이 강력한 활력을 선사해 눈가 피부를 더욱 탄탄하게 가꾼다. 15ml 29만4천원. 문의 080-564-7700, chanel.com

**리프러리 플레타늄 레이 오트-레주베이션 엘릭서** 리프러리의 독자 성분인 베티라 글루코스와 구형의 플레타늄 입자에 3개의 서로 다른 펩타이드가 달린 플레타늄 엘티 펩타이드가 피부 본연의 활성화 능력을 촉진해 즉 높아진 피부를 탄탄하게 끌어올린다. 무거운 제형이지만 빠르게 흡수되어 산뜻하게 마무리된다. 30ml 가격 미정. 문의 02-511-6626

**랑콤 어드밴스드 제-피피 7**개의 프리 & 프로바이오틱스 성분이 피부 미생물 생태계인 마이크로 바이옴의 균형을 찾아준다. 피부에 베일을 입힌 듯 가볍게 밀리며 생체에게 흡수되는 것이 특징이며 파카지에 특허 받은 드로파가 펄핑 시 1회 사용에 필요한 적당량을 도출해 위생적이고 간편한 사용이 가능하다. 75ml 20만4천원대. 문의 080-022-3332

**디올 프레스티지 라 마이크로 필드 로즈 어드밴스드 세럼** 라비오틴라지징 효과의 로즈 바이탈 수

액이 한 알 한 알마다 고농축되어 1만여 개의 로즈 마이크로 캡슐에 담겨 놀라운 흡수력과 효과를 선사해주는 세럼. 보습은 물론 피부 재생력을 강화해 피부를 즉각적으로 탄탄하고 견고하게 만들어준다. 75ml 53만원대. 문의 080-342-9500

**클레드노 보베 더 세럼** 독자 성분인 NEW 스킨 인피유팅 일루미네이터가 피부 본래의 회복 및 방어 능력을 강화해주고 세 가지 핵심류 추출물인 켈물렉스가 피부 재생력을 높여주며, 피부의 유연성과 탄력을 개선해준다. 세안 후 가장 처음 사용하는 세럼. 75ml 39만5천원대. 문의 080-564-7700

**폴라초이스 클리니컬 나이아신아마이드 20% 트리트먼트** 산뜻한 젤 제형에 담긴 고농도의 나이아신아마이드가 크고 넓어진 모공에 탄력을 부여해 사이즈를 줄여주며, 울퉁불퉁한 피부를 매끈하게 가꾼다. 아세틸글루코사민과 항산화제를 함유한 쇠비름 성분은 불균형하고 칙칙한 피부 톤을 밝힌다. 20ml 6만6천원. 문의 1661-6656

**스쿠아라센 RS-28 셀룰라 리주베이션 세럼** 투명하고 정성 있는 텍스처가 쏘쏘하게 감싸며 빠르게 스며들어 연약해진 피부를 되살리고 염증을 완화해 충조를 개선해준다. 그뿐 아니라 최적의 수분감을 선사해 조기 노화로부터 피부를 보호한다. 30ml 47만5천원. 문의 1644-4490 에티비 **성경진**

01A01E 신영민

# Renewing Essentials

피부 노화에 관한 크고 작은 고민의 근사한 해결책이 되어줄  
키엘의 스킨 리뉴잉 마이크로-도즈 세럼. photographed by park jae yong



다양한 인티메이징 제품 라인업으로 노화 개선을 위한 토털 솔루션을 제시해온 키엘이 새로운 제품을 출시했다. 주름, 탄력, 피부 차질도, 모공 면적, 피부결에 이르는 다섯가지 주요 피부 노화 징후를 개선하는 스킨 리뉴잉 마이크로-도즈 세럼. 레티놀을 비롯해 펩타이드, 세라마이드 배합의 포뮬라가 피부의 전반적인 컨디션을 점차 향상시켜 더 건강하게 피부를 유지해준다. 해당 제품을 사용하고 29세부터 52세의 여성을 대상으로 한 테스트에서 주름 x1.5배\*\* 개선, 탄력 x2.4배\*\* 개선, 피부 차질도 x1.6배\*\* 개선, 모공 면적 -8%\*\*\* 감소, 피부결 +8%\*\* 개선과 같은 의미 있는 효과가 나타났다. 특히 스카자 피부 나이 지수 예측 결과 제품 사용 후 4주 만에 실제 나이보다 2살 여려진 피부 나이 지수\*\*\*\*가 측정되는 놀라운 결과를 보이기도 했다. 이처럼 피부 노화의 징후를 다각도로 케어해주는 스킨 리뉴잉 마이크로-도즈 세럼은 세안 후 토너로 피부결을 정돈한 뒤 쌀알만큼 소량 펄핑해 얼굴 전체에 고루 펴 발라 사용한다. 레티놀이 함유된 제품을 처음 사용 한다면, 첫 사용 시 1~2주간은 격일로 자켓에 사용하고, 피부 전체에 비르기 보다는 고민이 되는 부위에 한해 소량으로 도포하며 효과를 살펴볼 것. 세럼을 바른 뒤에는 충분한 보습을 위해 수분 크림으로 마무리하는 것을 추천한다. 또 3주 처방되는 매일 사용이 가능한 자만 낮에는 항상 자외선 차단제를 덧발라주어야 한다. 한층 건강한 피부로 케어해주는 키엘 스킨 리뉴잉 마이크로-도즈 세럼은 지금 전국 키엘 매장과 공식 온라인몰을 통해 만나볼 수 있다. 객원 에디터 **이혜미**

- \* 29세~52세 32명 대상 1일 1회 8주간 제품 사용 후 기미 평가 결과, 단, 모공은 34명 대상
- \*\* 29~52세 여성 32명 대상, 1일 1회 사용, 팔자 주름(타원)1/부 표피 차질도 4주차 개선치 대비 8주차 개선치 비교 결과
- \*\*\* 29~52세 여성 34명 대상, 사용 직후 기미 평가 결과, 일사적 효능에 한함
- \*\*\*\* 35세~57세 여성 35명 대상, 4주간 1일 1회 제품 사용 후 97지 평가 지표에 대한 기미 측정 결과를 2분으로 하여, AI(Machine Learning) 기술을 이용해 종합적인 데이터 분석 후 피부 나이 지수 예측 결과

키엘이 선보이는 스킨리뉴잉 마이크로-도즈 세럼 50ml 11만8천원대 키엘.







CHANEL